

문제의 의도,
정답 해설과 오답 풀이를 제공하는

정답과 해설

1

생각을 펼치는 읽기와 쓰기

(1) 사회적 독서 활동에 참여하기

확인 문제 01

본문 12~13쪽

01. ④ 02. ④ 03. ③ 04. 이용자에게는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하고, 판매자에게는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

01 이 글의 중심 화제는 집단 지성으로 나타나는 별점 제도로, 별점 제도의 개념과 기능,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별점 제도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그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집단 지성, (나)에서 별점 제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②, ③ (다)에서 2022년 8월 3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8%가 별점 제도로 인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⑤ (나)에서 별점 제도가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아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길잡이 역할을 하며, 판매자에게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는 장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다)에서 별점 제도에 다양한 문제점이 있음을 언급하면서,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로 인해 판매자나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단점을 제시하였다.

02 ㉠에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의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는 것은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인터넷이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공유하거나 전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현대 사회는 정보를 독점하거나 통제하던 과거와는 다르다고 하였다.

② 과거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정보와 관련 없는 내용이다.

③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정보에 무관심해지고 있다는 의미와 거리가 멀다.

⑤ 누구나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였지, 다양한 매체를 접하는 연령대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개인 미디어에 더 많이 의존한다는 의미와도 거리가 멀다.

03 ㉡은 집단 지성의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별점 제도는 ‘집단 지성의 빛과 그늘을 모두 보여 준다’고 하였고, 다양한 문제도 있다는 언급으로 보아 집단 지성의 단점을 극복한 사례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별점 제도의 별점은 별 개수로 매겨지는 점수라고 하였다.

② (나)에서 별점 제도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평가들이 모여 집단 지성으로 작동한다고 하였다.

④ (나)에서 판매자에게는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04 (다)에서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아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이용자의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또 ‘판매자에게는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판매자의 입장에서의 장점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이용자와 판매자의 입장을 구별하여 지문에 제시된 장점을 서술한 경우	상
장점을 제시하였으나 이용자와 판매자의 입장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한 경우	중
별점 제도에 대해 언급하였으나 장점의 일부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14~15쪽

01. ③ 02. ③ 03. ⑤ 04. 호불호가 뚜렷해서 별점이 양극단으로 분포한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 별점 평균이 <그림 1>과 같이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01 ㉠: <그림 1>과 <그림 2>를 비교하여 중간값은 같지만 서로 다른 상황을 대조하고 있다.

㉡: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각 문단의 앞에 먼저 제시한 다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 ‘둘째’, ‘마지막으로’와 같이 논거의 순서를 나타내는 표지를 활용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이용자와 댓글 작성자의 속성에 대한 말을 인용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02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하였을 뿐 별점 참여자를 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자와 댓글 작성자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마)에서 별점 제도는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고 하였다.

② (라)에서 별점 제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은 별점 제도에 모든 이용자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④ (마)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균적인 맛집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는 것은 <그림 1>과 같은 정상 분포를 떠올릴 것이라는 의미이다.

⑤ (마)의 설명과 같이, 평점은 중간값이더라도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간값을 주지 않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03** ①, ②, ③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모든 사람의 평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내며, 특히 의견을 생산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별점 참여자는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그룹에서 뽑은 무작위 표본이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⑤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1%의 생산자와 9%의 열성적 공유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알리는 부류이므로 별점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글쓴이는 1%의 생산자와 9%의 열성적 공유자의 별점이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는 의견처럼 여겨지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③ 90%의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별점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해할 수 있다.

④ 1%의 의견을 전달하는 9%는 1%의 의견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침묵하고 있는 90% 역시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 04** 별점의 중간값은 같지만 분포 양상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그림 1>과 같은 정상 분포를 떠올릴 수 있지만 호불호가 분명하여 <그림 2>와 같이 별점 평가가 양극단으로 갈리는 경우에도 중간값은 3점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이용자의 호불호가 뚜렷해서 별점이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밝혀 서술한 경우	상
별점이 양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음을 밝혀 서술하였지만, <그림 1>과 비교하지 못한 경우	중
별점 평균이 중간값인 3점 근처에 형성되었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16~17쪽

01. ④ 02. ④ 03. ⑤ 04. 모든 이용자가 진술한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한다.

- 01** 별점 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나 폐지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

고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별점 제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② 이 부분에서는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③ 별점 제도의 기술적, 제도적 장치에서 허위 악성 평가를 정교하게 걸러내도록 제어 기술을 보완해야 한다는 언급은 있지만, 기술적인 한계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별점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지만 별점 제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 02** (아)에서 별점 제도를 통해 집단 지성의 힘으로 여론의 흐름을 만들어 갈 수도 있으나, 그릇된 방식으로 사용하면 선량한 시민의 삶에 가해지는 폭력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별점 제도로 인해 시민의 삶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폭력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아)에서 별점 제도는 사용 방법이 편리하며 소통의 즐거움을 준다고 하였다.

② (바)에서 별점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였다.

③ (사)에서 허위 악성 평가를 줄일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⑤ (사)에서 열람자들이 평가 결과를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별점 평가자의 추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 03** 법적으로 별점 평가나 상품 평을 작성자의 동의 없이 포털이나 플랫폼 사업자가 임의로 삭제할 수 없고, 글쓴이도 이를 제안하고 있지 않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허위나 악성 평가를 정교하게 걸러내는 기술이나 평가자의 수가 기준치를 넘을 때만 별점을 표시하는 것, 평가자의 이력을 참고하는 것은 분석 과정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③ 평가를 달 수 있는 작성자의 자격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 자료 수집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

- 04**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을 개선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이용자가 진술한 태도로 별점 평가를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임을 마지막 문장에서 밝히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이용자의 진술한 태도'를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이용자의 진술한 태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01. ⑤ 02. 별점 제도를 통해 집단 지성이 발휘되어 이용자와 판매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히려 사회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다.
03. ④ 04. ③ 05. ⑤ 06. ④ 07. ① 08.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준 것이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 09. ③
10. ④ 11. ⑤ 12. 별점 제도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폐지하기는 어렵다.

- 01 별점 제도의 문제 상황은 제시되어 있으나 유사한 원리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 상황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있지도 않다.

- | 오답 풀이 |** ① 정상 분포 곡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엠(M)자형 분포 곡선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
②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첫째, 둘째 등의 표지를 사용하여 열거하고 있다.
③ 2022년 8월 300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78%가 별점 제도의 피해 경험에 있다고 밝혔다는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
④ 별점 제도의 개념과 긍정적인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 02 별점 제도는 집단 지성이 드러나는 구체적인 사례로, 2문단에서는 장점을, 3~5문단에서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집단 지성과 별점 제도의 관계를 이해하고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모든 쓴 경우	상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썼지만 구체적이지 않은 경우	중
별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중 한 가지만 쓴 경우	하

- 03 1문단에서 '일반인들도 원하지만 한다면 자신의 일상이나 정보를 올리고 공유하여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린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누구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는 의미이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하려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 04 별점 제도의 별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2문단에서 별점 제도는 실용적이고 활용도가 높아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여부를 판단할 때 도움을 주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② 2문단에서 맛집과 카페를 다녀오거나 웹툰이나 영화를 본 뒤, 기업의 업무 평가나 학교의 강의 평가와 같이 별점 제도가 사용되는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④ 4문단에서 별점 평가는 전체 이용자가 아닌 1%의 생산자와 이를 열성적으로 전달하는 9%의 공유자의 의견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 ⑤ 3문단에서 별점 제도의 피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 수치가 제시되어 있다.

- 05 별점 제도는 집단 지성의 빛과 그늘을 모두 보여 준다고 하였다. 즉 별점 제도는 집단 지성이 나타나는 하나의 사례라고 이해할 수 있다.

- 06 ①은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로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가 실제로 불만족스러웠다면 별점으로 이를 나타낼 수 있고, 이러한 낮은 점수의 별점 평가를 보고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별점 제도를 활용한 것이지, 별점을 조작하거나 감정적으로 별점을 주는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아니다.

- | 오답 풀이 |** ① 조작된 별점 평가를 보고 상품을 구매하였다가 실망한다면 이는 별점 평가를 믿고 이용한 이용자의 피해에 해당한다.
②, ③ 감정적이거나 악의적인 별점 평가가 다른 이용자들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 이는 별점 평가로 인한 피해에 해당한다.
⑤ 조작된 별점 평가로 인해 판매자가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이다.

- 07 90%는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고 관망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점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 오답 풀이 |** ②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밝히고 있을 뿐, 그들의 의견 전달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③ 적극적인 소수의 의견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무작위 표본임을 강조하거나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④ ㉠은 별점 참여자가 많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⑤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10%의 의견을 신뢰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 08 별점 평가 작성자의 과거 평가 이력과 해당 상품을 이용한 횟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별점 평가 작성자가 실제로 해당 상품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평가자의 성향이 어떠한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별점이 조작되었는지, 감정적으로 준 별점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별점 제도의 문제점 중 조작된 별점이나 감정적으로 주어진 별점의 문제를 정확히 서술한 경우	상
--	---

별점 제도의 문제점 중 조작된 별점이나 감정적으로 주어진 별점의 문제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중
해당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 09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자이더라도 소수의 참여자가 별점 제도의 자료 분석에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는 없다. 대표성을 띠지 않는 소수가 전체를 대표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별점 제도에 참가하는 평가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될 때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② 악의적인 작성자를 걸러낼 수 있는 장치로 작성자의 자격 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⑤ 별점 작성자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제공된다면 열람자들이 작성자의 정보를 확인하여 별점에 대해 적절히 고려할 수 있다.

- 10 ㉠은 별점의 분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값으로 잘못 추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평가가 1점과 5점에 극단적으로 분포한 경우에도 중간값인 3점 근처에 많은 이용자가 모여 있을 것이라고 잘못된 추론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11 <그림 2>처럼 별점이 양극단으로 양분된 경우 이용자들이 이러한 분포를 알지 못한다면 중간값인 3점에 별점이 모여 있을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그림 1>과 <그림 2>의 경우 어느 쪽에 많은 이용자들이 반응했는지는 알 수 없다. 분포 정도만 알 수 있다.

③ 호불호가 뚜렷하다고 해서 이용자의 정확한 반응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그림 1>과 <그림 2>의 중간값은 둘 다 3이며, 별점 평균도 3으로 나타난다.

- 12 사회적 독서는 독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별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당장은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구성원들과 함께 그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인정하며 당장은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상
별점 제도의 문제점은 인정하였지만 별점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는 점을 누락한 경우	중
별점 제도에 문제점이 있음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2) 주제 통합적 읽기와 논증하는 글 쓰기

확인 문제 01

본문 30~31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①

- 01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인 스티븐 핑커 교수와의 대담 내용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커 교수와 대담을 한 경험을 언급하고 있지만 자신의 입장이 달라졌음을 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③ 대담자의 입장과 상반된 의견과 그에 대한 반박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④ ‘선생님’과 같은 호칭을 통해 질문자와 대담자의 관계를 추측할 수는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이 자료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매체이긴 하지만, 그 매체를 활용하여 다양한 의견들을 요약하고 있지는 않다.

- 02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지닐 수 있겠느냐는 질문으로 대담이 시작되고, 담화의 주제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질문이 화제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④ 질문자는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이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발달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⑤ 대담자를 향해 시청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내용을 대신 질문하고 있다.

- 03 한 발짝 달아난다는 것은 인공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과 차별화된 능력을 갖는다는 의미이다. 즉, 인공지능이 흉내 낼 수 없는 또 다른 능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인간이 인공지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다. 하지만 ㉠의 의미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내더라도 인간의 지성은 더 높은 수준으로 차별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 04 ㉠은 현재의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으며, ㉡는 점점 더 발전한 미래의 인공지능이라 할 수 있다. 대담자는 ㉠과 ㉡ 모두 인간의 지성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과 ㉡ 모두 인간의 지성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은 시키는 일을 할 뿐 지능이 아니라고 하였고 ㉡는 인간의 지성을 흉내 낼 뿐 인간의 감정을 지니기는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둘 다 인간의 감정을 모방해서 만들었다고 볼 수 없다.

③ ㉠과 ㉡는 모두 인간이 인터넷 공간에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공지능이 인터넷 공간의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다.

⑤ ㉠와 ㉡는 모두 명령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확인 문제 02

본문 32~33쪽

01. ⑤ 02. ① 03. ② 04. ④

01 시냅스는 신경 세포들 사이의 좁은 간격이다. 시냅스에서는 화학 물질이 분비되지만 화학 신호에 따라 구조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신경 세포는 신호가 입력되는 가지 돌기와 신호가 출력되는 축삭 돌기로 이루어져 있다.

④ 뇌는 신호를 전달하는 신경 세포의 집합이라고 하였다.

02 [A]는 자전거 타기를 배우는 일상의 사례를 들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자전거 타기를 통해 신경 가소성에 따라 근육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뇌의 신경 전달 과정을 근육의 움직임에 비유한 것은 아니다.

③ 뇌와 근육에서 신경 신호가 전달되는 속도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④ 신경 가소성의 특징만 설명할 뿐 장점과 단점을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⑤ 자전거 타기를 사례로 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학습과 자전거 타기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03 신경 가소성은 자주 사용하는 시냅스 연결은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연결은 약화되는 것이다. 신호 전달이 지체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3문단에 제시되어 있다.

③, ④ 자전거 타기를 반복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은 자전거 타기와 연관된 시냅스 연결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신경 가소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신경 가소성은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느냐 약화되느냐이므로 축삭 돌기와 가지 돌기가 시냅스로 연결되어 신호 전달의 강도를 조절하는 구조와 관련이 있다.

04 ㉡의 이유는 신호 전달 강도를 조건에 따라 변화시키기 위해서인데 시냅스는 유연해서 신호 전달의 강도를 조건에 따라 변화시켜 시냅스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오답 풀이 | ① 신경 세포 내에서는 전기 신호로 전달되며 신경 세포들 사이에서는 화학 신호로 전달된다.

② 신경 세포들의 간격인 시냅스가 더 좁아진다는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전기 신호가 바뀌어 화학 신호인 아세틸콜린이 분비되는

것은 맞지만 아세틸콜린을 분비하기 위해서 전기 신호가 화학 신호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⑤ 신경 세포에서 신호가 전달되는 과정이며 ㉡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확인 문제 03

본문 34~35쪽

01. ② 02. ④ 03. ④ 04. 인공 신경망에서 학습은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하는 것이다.

01 신경계의 학습 원리는 모두 유사하다고 하였고,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이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므로 인간과 바둑 대결을 벌인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뇌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달팽이부터 인간까지 신경계의 학습 원리는 같다고 하였다.

③ 2문단에서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여 인공 신경망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다.

④ 3문단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1, 흐르지 않는 것을 0으로 나타낸다고 하였다.

⑤ 4문단에서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다고 하였다.

02 기억은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저장되어 있으며, 이 결합 강도가 강화되는 것을 '학습'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즉, 기억이 있으면 결합 강도가 강화되는 것이지, 신경 세포의 몸통이 시냅스의 결합 강도를 기억하여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신경 세포의 몸통에서는 축삭 돌기를 통해 신호를 내보낸다.

② 여러 개의 가지 돌기를 통해 신경 세포의 몸통으로 전기 신호가 들어온다.

③ 같은 입력이라도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따라 출력이 달라진다.

⑤ 입력 신호들은 신경 세포의 몸통에서 합쳐지며, 입력된 값의 합이 임계값을 넘을 때만 신호를 내보내므로, 신호들의 합이 임계값을 넘는지 판단한다고 할 수 있다.

03 적절한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한다면 인공 신경망을 통해 출력되는 최종적인 결과물이 정확해질 것이다. 원하는 값이 출력되기 때문이다. 이는 계산을 수행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입력값이 1이더라도 가중치에 따라 임계값을 넘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0이 출력될 것이다.

② 인공 신경망에서 신경 세포들은 화살표로 연결되고 화살표가 전달 통로이자 시냅스가 된다.

③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해당하는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하였다.

⑤ 숨겨진 층의 신경 세포가 계산을 수행하여, 임계값을 넘을 때만 1을 출력하여 그다음 층으로 신호를 보낸다고 하였다.

- 04** 인공 신경망에서는 값을 입력한 후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수없이 반복하면 적절한 가중치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을 '학습'이라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가중치, 원하는 값, 반복 등의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여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핵심어를 모두 사용하였지만 문장이 어색한 경우	중
핵심어의 일부만 사용하여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4

본문 36~37쪽

01. ④ 02. ① 03.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같은 속성은 인간의 감수성이나 편견에 국한될 뿐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일 수 없으며, 로봇에게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

- 01** 인간은 바로 옆 사람의 의식이나 감정 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만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인공지능 로봇의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 역시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바로 옆 사람이 어떤 감정 상태인지 짐작만 할 수 있을 뿐 정확히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②, ③ 3문단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⑤ 1문단에서 우리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 02** ㉠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가 중심 화제임을 드러내고 있다. ㉡은 질문의 형식을 통해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인간이 확인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03** ㉢는 ㄱ과 ㄴ이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 판단에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이 왜 기준이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관련하여 ㄱ과 ㄴ에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관련하여 ㄱ과 ㄴ에 제기되는 두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중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관련하여 ㄱ과 ㄴ에 제기되는 문제의 핵심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5

본문 38~39쪽

01. ① 02. ③ 03. 어떤 대상의 도덕적 지위는 우리가 그 대상과 일상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 01** 2문단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진짜 감정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인간에게 감정이 있는 존재로 받아들여지는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③ 군사 로봇이나 감정 로봇 같은 소셜 로봇은 정서적 반응을 인위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만든 소셜 로봇이지만, 인위적 공감도 거짓된 감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④ 1문단의 로봇 강아지의 예에서 알 수 있다.

⑤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는 그것들이 처해 있는 맥락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 작용의 관계를 통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 02**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반응은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이끌어 내려는 로봇의 프로그램된 행동이지, 사람을 향한 로봇의 정서적 반응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⑤ 오랫동안 함께 살면서 정서적 반응이 생겨 교감하며 지내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03** 관계론적 접근은 인공지능 로봇이 실제로 어떤 존재인지를 따지기보다 일상적 경험 행위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관계 맺고 상호 작용하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우리가 그 대상과 일상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밝혀 서술한 경우	상
우리가 그 대상과 일상에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을 밝혔지만 문장이 어색한 경우	중
핵심 어휘를 일부 누락하여 서술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47~50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③ 05. ③ 06. 1 또는 0으로 입력된 값에 적절한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이 임계값을 넘을 때만 1을 출력하는데, 원하는 값이 출력되도록 가중치를 반복하여 조정한다.
07. ① 08. ② 09. ④ 10. ④ 11. ⑤ 12. ② 13.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 같은 속성이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있는가, 로봇에서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

- 01** (가)의 대답자는 인공지능이 더 발달하더라도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관련 분야의 권위자인 스티븐 핑커 교수의 말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 ② 인공지능은 인터넷 공간에 인간이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 ③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흉내 내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하였다.
- ⑤ 인간은 인공지능과 달리 자신을 어떤 상황에 투영해 보고 반성해 보는 능력인 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02 (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경계와 동일한 구조와 원리로 학습을 한다고 하였지만, 감정을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쌓아 놓은 데이터를 모아서 원하는 결과를 되돌려준다고 하였으므로, 인간의 뇌와 비슷하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모방할 수는 있지만 인간의 지성은 따라올 수 없다고 하였다.
 ③ (나)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신경계의 특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인공 신경망을 갖추고 있다고 하였다.
 ⑤ (나)에서는 인간이 시냅스의 결합 강도를 강화시켜 학습을 하듯이 인공지능도 원하는 출력값을 얻기 위해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학습을 한다고 하였다.

03 임꺽값은 출력값을 0 또는 1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미 정해져 있는 값이다. 입력값인 0 또는 1에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은 임꺽값과 비교되는 값으로, 그것이 임꺽값이 되는 것이 아니다.

04 스티븐 핑커 교수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시키는 일만 할 뿐이지 지능이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공지능이 학습을 통해 적절한 가중치를 얻는다고 해도 인간의 명령만을 따를 뿐이라고 반응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④, ⑤ (나)에서 설명한 인공지능이 인공 신경망을 통해 작동하는 원리일 뿐 스티븐 핑커 교수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다.
 ② 스티븐 핑커 교수는 신경계를 모방하여 인공지능을 만들더라도 인간의 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05 달팽이부터 인간까지 신경계의 학습 원리가 같다는 것은 생명체의 신경계의 학습 원리가 스냅스 연결이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신경 가소성의 원리로 동일하다는 의미이지, 인간의 학습 능력과 달팽이의 학습 능력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인간이 시키는 일을 할 뿐이라는 것은 자율성이나 주체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② 우리가 또 한 발짝 달아난다는 것은 인간이 우월한 능력으로 앞서 나간다는 의미이다.
 ④ 가중치가 시냅스의 결합 강도에 해당한다고 하였고, 시

냅스는 결합 강도가 강할수록 출력 신호의 세기도 강해진다고 하였으므로 시냅스의 결합 강도가 높다면 가중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⑤ 생물학적 신경계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고 학습하는 것은 인간의 뇌와 유사한 구조와 기능을 갖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06 어떠한 입력값이 들어오면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값이 임꺽값을 넘을 때 출력값을 1로 하는 단계를 여러 차례 거치도록 구성한다. 이때 원하는 값이 나오도록 가중치를 조절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는 원리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입력값과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과 임꺽값의 기능을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입력값과 가중치를 계산하는 과정을 서술하였으나 설명이 부족한 경우	중
입력값, 가중치, 임꺽값 등의 개념어들 중 일부를 누락하여 서술한 경우	하

07 (가)는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 인공 신경망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는 인공지능의 인공 신경망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③ (나)는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기준과 의견에 대해 설명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지, 로봇의 도덕적 지위 자체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나)에서 인공지능 로봇의 특수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나) 모두 인공지능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08 입력이나 출력 모두 0과 1의 나열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입력되는 값이 1보다 클수록'이라는 이해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입력되는 값이 많다면 가중치를 곱하여 더해지는 값이 많아져 0이 출력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③ 가중치는 입력값에 곱해지므로 가중치가 클수록 임꺽값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④, ⑤ 어떤 값이 입력되었다면 가중치를 곱하여 더한 후 임꺽값과 비교하게 된다. 그리고 임꺽값보다 작으면 0이, 임꺽값보다 크면 1이 출력될 것이다.

09 ㄴ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지성이나 고통 감수성이 없다고 생각하여,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은 ㄴ에 대한 비판의 관점이다.

| 오답 풀이 | ① ㄱ은 인공지능 로봇이 고통 감수성이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② 글쓴이는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지성이나 고통 감수성 등의 판단 기준은 인간의 감수성이나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③ ㄴ은 인공지능 로봇에게 고통 감수성이 없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⑤ ㄱ과 ㄴ은 둘 다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도덕적 지위를 결정한다.

10 [A]에서는 일상에서 옆 사람의 감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사례가 제시되었다. 이 사례는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견해를 뒷받침한다.

| 오답 풀이 | ① 다른 사람의 감정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인간과 로봇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② 자신의 경험을 활용한다기보다 일반적인 사례를 제시하였고, 인간만이 기쁨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입장도 아니므로 적절한 이해라 볼 수 없다.

11 (나)의 글쓴이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흔히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같은 속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왜 그와 같은 특성들이 핵심 기준 인지를 정당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기준들은 인간의 감수성이나 종족적 편견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인간이 동물이나 인간 스스로의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12 ㄷ과 ㄹ은 인공지능 로봇이 지능이나 의식, 고통 감수성을 지니느냐에 관계없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는다. 즉, 인공지능 로봇의 속성과 무관하게 인간의 가치관에 따라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13 ㉠은 ㄱ과 ㄴ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ㄱ과 ㄴ에 대한 비판 지점이 된다. 즉, 도덕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지니는지 여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관련된 두 가지 문제 중 한 가지만을 서술한 경우	중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과 관련된 문제의 핵심 내용을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54~57쪽

01. ① 02. ③ 03. ③ 04. ③ 05. ① 06. ③ 07. ②
08. ④ 09. ⑤ 10. ③ 11. ④ 12.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지 않아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01 ‘첫째’, ‘둘째’, ‘마지막으로’와 같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나열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원인과 결과를 밝히고 있지 않으며, 별점 제도에 대한 반론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잘못된 추론의 상황에 대한 예가 제시되고 있을 뿐,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별점 제도의 문제점을 반박하고 있지 않다.

④ 질문과 대답의 형식으로 별점 제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별점 제도가 활용되는 일상적인 경험은 언급이 되었지만 집단 지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02 3문단에서 별점 참여자는 무작위 표본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이용자를 대표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판매자에게는 미래의 판매 전략을 세우는 근거가 된다고 하였다.

② 4문단에서 별점 제도를 통해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다.

④ 1문단에서 별점 제도의 긍정적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⑤ 2문단에서 별점 제도의 첫째 문제로 지적한 사항이다.

03 1%의 생산자와 9%의 열성적 전달자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드러내는 이용자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90%의 한발 뒤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은 익명성을 보장할지라도 자신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 이용자들이라 할 수 있다.

04 분포 상황이 정상 분포일 경우 중간값에 가장 많은 이용자가 모여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별점의 평균이 중간값과 거의 일치할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의 값이 높은 경우가 아니라, ㉠에 많은 이용자가 있을 경우 정상 분포를 이룬다.

② 별점의 평균이 같다면, ㉠과 상관없이 ㉠은 같다.

④, ⑤ ㉠이 엠(M)자형 분포일 경우에는 ㉠에 이용자가 거의 없는 것이고, ㉠이 낮은 것이 아니다.

05 <보기>는 집단 지성이란 여러 사람이 서로 협력하거나 경쟁하는 과정을 통해 얻게 된 집단의 지적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가짜 뉴스나 출처 없는 정보들이 잘못된 집단 지성을 형성하면 사회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호불호가 뚜렷하여 별점이 엠(M)자형 분포를 이룬 경

우, 이는 별점 제도가 잘못된 추론을 이끌어 내기도 하는 사례일 뿐 이 자체가 잘못된 집단 지성이나 집단 정서로 형성된 것은 아니다. 별점은 엠(M)자형 분포를 이룰 수도 있으며 이를 왜곡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 잘못된 집단 지성이나 집단 정서가 형성될 수 있다.

- 06** (가)는 인공지능이 작동하여 학습하는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나)는 인공지능 로봇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다양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④ (가)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만든다고 하였으므로 차이를 제시한다고 볼 수 없다. (나)는 인공지능이 발전해 온 과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나)에서는 관계론적 접근의 입장을 주장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로봇의 개념을 정립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

- 07** (나)에서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인간은 그것에 대해 감정적 태도를 가질 수 있으며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실제로 지니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나)에서 소셜 로봇의 개념이 무엇인지 밝히고 그 예로 로봇 강아지, 군사 로봇, 감정 로봇 등을 제시하고 있다.

- 08** (나)에서 소셜 로봇은 사람이 동물이나 다른 인간에게 감정을 이입하는 행동 양식을 이용해 정서적 반응을 인위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만든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신경 세포가 계산을 수행하고 신호를 넘겨주는 것은 인간의 정서적 반응을 인위적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로봇의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나)의 글쓴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진짜 감정은 없지만 거기에서 느끼는 인위적 공감도 거짓 감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② (나)의 글쓴이는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③ 인공지능에서 시냅스를 구현하는 것은 적절한 가중치를 통해 원하는 값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지,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아니다.

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뇌를 모방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지만, 가축들이나 반려동물들의 경우처럼 인간과 함께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하였다.

- 09** 마크 쿠헤버그는 관계론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관계론적 접근은 대상이 우리에게 감정이 있는 존재로 보이는지, 어

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소셜 로봇이 보편화되면 누군가 소셜 로봇을 부수거나 괴롭히면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에 어긋나므로 비난받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을 뿐, 인공지능 로봇을 부수거나 괴롭히는 사건이 사회적 통념이나 규범에 어긋나는 수준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 10** ㉔의 ‘적지 않다’는 ‘상당하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상당하다’는 ‘어지간하게 많다’는 의미이다.

| 오답 풀이 | ① ㉔는 ‘변한다’나 ‘변경된다’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② ㉔는 ‘구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④ ㉔는 ‘상충되기에’로 바꾸어 쓸 수 있다.

⑤ ㉔는 ‘이루고’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11** <보기>는 연결주의 알고리즘인 퍼셉트론을 설명하고 있다. 퍼셉트론은 임의로 설정된 가중치에서 학습을 시작하여 가중치를 수정해 가는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다. 이는 도덕적 지위가 객관적이지 않다는 것과 관련이 없다.

- 12** 관계론적 접근에 따라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지 않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지 않았지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서술한 경우	상
인공지능 로봇이 의식이나 고통 감수성을 갖지 않았다는 점과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을 연계하지 못한 경우	중
관계론적 접근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하

2 우리 문학의 흐름을 따라

(1) 옛 노래의 향기

확인 문제 01

본문 66~67쪽

01. ③ 02. ② 03. ③ 04. '몰다 이르고'는 누이가 이별의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난 상황을, '이른 바람에'는 너무나 때 이른 이별을 했음을 의미하고 있으므로, ㉠과 ㉡을 통해 누이가 갑작스럽게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1 이 작품은 누이를 잃은 화자의 상황과 정서를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일상생활의 정서를 직설적으로 표출하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향가는 고려 초까지도 창작되었으나, 주로 신라 시대에 불린 노래이다.

② 향가는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한 향찰로 기록되어 전승되었다.

④ 10구체 향가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으며 이러한 구조는 훗날 시조 문학의 작품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⑤ 향가는 승려가 작가층으로 참여하였는데, 이 작품도 월명사라는 승려가 지은 작품으로 '미타찰'과 같은 시어에서 불교적 성격이 잘 드러난다.

02 '생사(生死) 길은 /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에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 있으므로, 인간의 유한성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식이 담겨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혈육인 누이의 죽음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운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③ 현세와 다른 종교적 세계가 '미타찰'로 설정되어 있다.

④ 죽음의 슬픔을 종교적으로 승화하려는 의지가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를 통해 잘 드러나 있다.

⑤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이라는 비유를 통해 누이와 이별한 상황이 제시되고 있다.

03 이 작품에는 주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어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주제 의식의 변화에 따른 어조 변화가 잘 드러나도록 해야겠다는 낭송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10구체 향가에서 낙구에 나타나는 감탄사에는 화자의 정서가 집약되는 경우가 많다. 이 작품의 '아아'에도 화자의 슬픔이 집약되어 나타나고 있다.

② 10구체 향가는 크게 세 부분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아아'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어 슬픔을 이겨 내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⑤ 1~4구는 누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안타까움이, 5~8구는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비유적으로 나타나 있다.

04 '몰다 이르고'는 누이가 이별의 말조차 남기지 못하고 떠난 상황을, '이른 바람에'는 너무나 때 이른 이별을 했음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과 ㉡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누이가 갑작스럽게 때 이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정황을 이유와 함께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정황과 이유를 서술했으나 다소 부족하게 서술한 경우	중
이유는 서술하지 않고 정황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68~69쪽

01. ① 02. ③ 03. ④ 04. ③

01 이 작품은 인간이 자연과 친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인간과 자연의 속성을 대조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나 한 간 달 한 간에 청풍 한 간'과 같이 유사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③ '초려 삼간'에서 '강산'으로 시상이 근경에서 원경으로 전개되고 있다.

④ '십 년을 V 경영야야 V 초려 삼간 V 지어 내니'와 같은 4음보의 규칙적인 배열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⑤ '달'과 '청풍'을 의인화하여 자신의 집에 들인다는 발상을 통해, 자연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02 이 작품은 권력자의 횡포와 수탈과 같은 부조리와 폐단을 비판하고 있다.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할 때, '두터비'는 '두터비'가 서민을 착취해 쌓아올린 재물이며, 탐관오리의 수탈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오답 풀이 | ① '두터비'를 탐관오리로 본다면, '파리'는 '두터비'에 의해 고통을 받는 힘없는 백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백송골'을 보고 '두터비'가 깜짝 놀라는 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백송골'은 '두터비'보다 우월한 존재로 볼 수 있다.

④ 종장을 '두터비'가 한 말로 본다면, '백송골'을 보고 놀라자빠진 상황에서도 잘난 척을 하는 '두터비'의 허장성세와 위선이 드러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⑤ 시의 맥락을 고려할 때, '두터비'가 '풀떡 뛰여 내뺏'은 이유는 '가슴이 금죽하여'이다.

03 (가)는 사대부에 의해 창작된 평시조이다. 반면 (나)는 사실시조로, 시조의 작가층이 평민 계층으로 확장되어 내용과 형식 면에서 자유로워졌음을 보여 주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자연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으므로, 대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당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를 담고 있는 것은 (가)가 아니라 (나)이다.

③ 개인적인 정서와 태도를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이다.

⑤ (나)는 양반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주제로 삼고 있지만, (가)는 그렇지 않다.

04 (가)의 '강산'은 화자가 친화적으로 대하는 대상이지만, (나)의 '갯년산'은 두려움을 느끼는 대상이 있는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청풍'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다.

② ㉡은 '두터비'가 두려움을 느끼는 존재가 있는 공간이다.

④ ㉢은 화자가 느끼는 자부심과 관련이 없다.

⑤ ㉣은 화자가 지닌 이중적 속성을 드러내지만 ㉠은 그렇지 않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76~78쪽

01. ③ 02. ① 03. ② 04. 평시조인 (나)와 달리 사실시조인 (다)는 중장의 길이가 형식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길어져 있다. 05. ⑤ 06. ④ 07. (나)는 (가)의 영향을 받아 세 개의 의미 단락(초장, 중장, 종장)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을 갖게 되었다. (다)는 이러한 형식을 수용하고 중장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점에서 (나)가 창조적으로 계승되었음을 알 수 있다. 08. ② 09. (다)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터비' 같은 존재이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두터비'와 같은 부정적인 대상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한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 세태에 대해서도 인식하게 된다. 10. (가)와 (나)의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하나되어 소박하고 청빈하게 사는 안분자족, 유유자적(안빈낙도, 물아일체, 물심일여 등)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 준다. 11. ③ 12. ② 13. ④

01 (나)는 사대부에 의해 창작된 평시조이므로, 민중 정서를 기반으로 삼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유층의 변화를 엿보기도 어렵다. 이에 해당하는 작품은 (다)이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10구체 향가이고, (나)는 시조로 (가)와 (나)는 모두 세 개의 의미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가)의 '아아'가 화자의 정서를 집약하며 시상을 전환한다는 점에서 (다)의 '모쳐라'와 그 기능면에서 유사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다)는 (나)에 비해 중장의 길이가 형식상의 제약을 받지 않고 길어졌다.

⑤ (가)와 (나)가 개인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는 반면

(다)는 사회적인 문제를 주제로 삼고 있다.

02 (가)는 승려에 의해 창작된 작품으로, 불교적 기원을 담고 있다. 따라서 지배층의 정치적 의도가 배경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② 승려인 월명사가 창작한 것으로, '미타찰'에서 죽은 누이를 만나고자 하는 불교적 기원을 담고 있다.

③ 이 작품은 10구체 향가로 여러 형식 중에서 가장 긴 형식에 해당한다.

④ 형가인 이 작품은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음식으로 기록한 향찰로 표기되었다.

⑤ 향가는 신라에서 고려 초까지 불리었으므로, 조선 후기에 나타나는 사실시조보다 앞선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03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벗어나 '초가삼간'을 짓고, '달', '청풍', '강산' 등과 같은 자연과 동화되어 살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04 (나)는 평시조, (다)는 사실시조로, (다)는 (나)와 달리 중장의 길이가 형식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길어져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형식상 (다)의 사실시조로서의 특징과 평시조와의 차이점이 적절하게 서술된 경우	상
형식상 사실시조로서의 특징과 평시조와의 차이점이 서술되었으나 다소 부족함이 있는 경우	중
형식상 사실시조로서의 특징만 언급한 경우	하

05 '미타찰'은 화자가 종교적 수행을 통해 내세에 도달하여 누이를 만나고자 하는 공간이고, '초려 삼간'은 화자가 자연과 벗하며 현세에 머물고자 하는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① 초려 삼간이 자기반성을 수행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초려 삼간을 만남과 이별이 병행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③ 초려 삼간이 화자의 욕망이 감추어지는 공간은 아니다.

④ 미타찰을 화자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보기 어렵다.

06 ㉠은 세상을 떠난 누이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어 안타깝고 허무한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반어적 표현이 사용된 것도 아니며 자신에게 닥친 운명을 담담히 수용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은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누이와의 갑작스러운 이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② ㉡은 '이른 바람'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누이가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음을 나타내고 있다.

③ ㉔은 누이가 화자와 혈육 관계임을 ‘한 가지’에 난 앞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⑤ ㉔은 죽은 누이와 재회하고 싶은 화자의 소망을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라는 의지의 표현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 07** (나)는 (가)의 영향을 받아 세 개의 의미 단락(초장, 중장, 종장)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형식을 갖게 되었으며, (다)에도 이러한 형식이 수용되었다. 덧붙여 (다)에는 중장의 길이가 길어지는 변형을 통해 (나)를 창조적으로 계승하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나)가 (가), (다)와 주고받은 영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나)가 (가), (다)와 주고받은 영향을 3단 구성에 국한하여 서술한 경우	중
(나)가 주고받은 영향을 서술하되, (가) 또는 (나)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하

- 08** <보기>의 ‘술개’와 마찬가지로 (다)의 ‘두터비’도 약자에게는 우쭐한 모습을,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다)의 ‘두터비’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존재로는 묘사되고 있지 않다.

③ <보기>의 ‘썩은 쥐’와 (다)의 ‘파리’ 모두 자신이 처한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존재로 묘사되지는 않는다.

④ <보기>의 ‘봉황’과 (다)의 ‘백송골’ 모두 우위에 있는 존재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⑤ <보기>의 ‘봉황’과 (다)의 ‘백송골’ 모두 위험에 처한 약자에 대해 연민을 느끼는 대상으로 묘사되고 있지는 않다.

- 09** (다)에서 풍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약자를 괴롭히면서 강자에게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두터비’ 같은 존재이다. 이 작품을 읽은 독자는 ‘두터비’와 같은 부정적인 대상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게 되고 그러한 세력이 존재하는 현실 세태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풍자의 대상과 독자가 얻게 되는 효과가 모두 적절하게 서술된 경우	상
풍자의 대상과 독자가 얻게 되는 효과를 모두 언급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부족한 경우	중
풍자의 대상과 독자가 얻게 되는 효과 중 한 가지만 언급한 경우	하

- 10** (가)와 (나)의 화자는 둘 다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하고 청빈한 삶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에 공통되는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한자 성어로 안분지족, 유유자적, 안빈낙도, 물아일체, 물심일여 등이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가)와 (나)의 시적 화자의 공통된 삶의 태도를 한자 성어 두 개 이상을 제시하여 설명한 경우	상
(가)와 (나)의 시적 화자의 공통된 삶의 태도를 한자 성어 한 개만 제시하여 설명한 경우	중
(가)와 (나)의 시적 화자의 공통된 삶의 태도를 설명하였으나 한자 성어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하

- 11** (가)는 평시조이고, (나)는 가사로, (가)와 (나)의 작자는 모두 사대부이다. 시조와 가사는 모두 초기에는 사대부 계층에서 향유되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서 작자층이 확대되고 평민 등 모든 계층이 향유하게 되었다.

- 12** (가)에서는 ‘강산(江山)’을 돌려 두고 본다고 표현하여 병풍에 비유하고는 있지만, 의인화한 표현은 없다.

| 오답 풀이 | ① ‘초려 삼간’은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시적 화자의 소망이 집약되어 있는 시어이다.

③ (나)의 ‘넋사름 ~미출가 못 미출가’, ‘지락을 뭇물 것가’ 등은 의문의 형태를 취하였으나 대답을 요구한다기보다는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자부심과 만족감을 드러내는 설의적 표현이다.

④ ‘도화 행화논 ~프르도다’, ‘답청으란 ~조수호새’ 등에 열거와 대구를 활용하여 자연을 즐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⑤ ‘풍월주인’은 ‘맑은 바람과 밝은 달 따위의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 13** (나)의 화자는 ‘산림’ 속에서 생활하는 자신의 풍류를 옛 선인들의 풍류와 견주며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옛 선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연 속에서 소박하게 사는 생활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옛이야기의 즐거움

확인 문제 01

본문 82~83쪽

01. ④ 02. ④ 03. ④ 04. 연화봉 돌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 희롱하고 세속적 욕망을 꿈꾸다 이를 안 육관 대사가 성진을 지옥으로 추방하였다.

- 01** “대사께서 저희가 스님의 맑은 세계를 더럽혔다고 여기셔서 위 부인에게 고해 대왕께 오게 했습니다.”라는 팔선녀의 말을 통해 자신들이 추방당한 이유를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성진은 육관 대사의 명을 거부하지 않았다.

② 성진은 자신이 지옥에 추방된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③ 염라대왕은 성진이 장차 중생을 구제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

⑤ 염라대왕은 좌우에게 시켜서 지상보살에게 성진과 팔선녀의 죄를 고하였다.

02 ‘문밖’은 팔선녀가 염라대왕에게 죄에 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공간으로,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고 있으므로 현실을 그리워하는 공간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저승문’으로 들어간 성진이 황건역사를 따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

② ‘삼라전’에서 염라대왕이 성진에게 가졌던 기대를 언급하고 있다.

③ ‘삼라전’에서 성진은 염라대왕이 자신에게 가졌던 기대를 듣고 아주 부끄러웠다고 하였다.

⑤ 팔선녀는 ‘뜰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

03 [B]에서 염라대왕이 팔선녀에게 ‘신선의 세계에는 원래 드넓고 아름다운 땅과 한없는 즐거움이 있는데 어찌 여기까지 이르렀느냐’고 현재 상황에 처한 이유를 묻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와 [B] 모두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있다.

② [A]와 [B] 모두 자신의 과거에 대해 변명하고 있지 않다.

③ [A]와 [B]는 중심 사건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질문을 하고 있다.

⑤ [B]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묻고 있지 않다.

04 성진은 연화봉 둘다리에서 팔선녀를 만나 희롱한 후 세속적 욕망을 꿈꾸었고 이를 안 육관 대사가 지옥으로 추방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성진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한 주체와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성진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한 주체와 이유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성진을 인간 세상으로 쫓겨나게 한 주체와 이유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84~85쪽

01. ③ 02. ⑤ 03. ② 04. 저승사자를 통해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전기적 과정은 현실에서 꿈속 공간으로 성진이 들어가 환생할 수 있도록 하여 환몽 구조를 형성한다.

01 저승사자는 성진에게 환생하는 장소와 방법을 알려 주어 성진이 인간 세상에서 환생하는 과정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전기성

전기성에서 전기(傳奇)는 중국 당나라 때 발생한 문어체 소설을 가리키는데, 전기는 대체로 귀신과 인연을 맺거나 용궁에 가 보는 것 같은 기괴하고 신기한 일들을 내용으로 한다. 이 부분에서 염라대왕의 명에 바람이 일어 아홉 사람이 바람을 타고 인간 세상에 들어가 환생하는 장면도 전기성을 띠고 있다.

02 이 작품은 전기적 작가 시점이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하여 과거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저승사자와 같은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성진이 인간 세상에 환생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② 인간 세상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③ 양소유로 환생하기 전의 성진의 생각을 내적 독백의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④ 저승사자의 말을 통해 성진이 태어나게 될 장소와 집안, 부모 등에 대한 정황을 드러내고 있다.

03 당나라 회남도 수주현은 꿈속 인간 세상에서 성진이 환생하는 공간이며, 연화봉은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기 전에 육관 대사의 제자로 지내던 공간이다.

| 오답 풀이 | ① ㉠은 성진의 욕망이 좌절되는 공간이 아니다.

③ ㉠에서 성진은 옛날 일을 잊어버리므로 지나온 세월을 반성하지 않고, ㉡은 전생의 공간이므로 소유가 전생의 삶을 추억하는 공간도 아니다.

④ ㉢에서 소유는 천상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

⑤ ㉠은 성진의 정신이 새로운 육체에 들어가는 공간은 맞지만 ㉡은 성진의 육체에 새로운 정신이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다.

04 저승사자를 통해 성진이 인간 세계로 들어오는 전기적 과정은 현실에서 꿈속 공간으로 성진이 들어가 환생할 수 있도록 하여 작품의 서사를 환몽 구조가 되도록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전기적 요소를 밝히고, 해당 전기적 요소가 지니는 서사적 의미를 서술한 경우	상
전기적 요소와 해당 전기적 요소의 서사적 의미를 서술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경우	중
전기적 요소에 대해서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86~87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③

01 소유는 난간에 기대어 영웅호걸의 부귀공명에 대해 느낀 허

무감을 처첩에게 말하고 있다. 즉 소유의 내면 심리를 대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초월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③ 서술자가 특정 사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평가하고 있지 않다.

④ 영웅호걸들의 과거가 소유의 말을 통해 나타날 뿐,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구름과 무릉 등에 대한 배경 묘사가 나타나나, 해당 공간에 대한 인물의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소유는 통소로 흐느끼듯 구슬픈 곡을 연주한다. 통소는 소유가 자신이 살아온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드러내는 소재로 사용되고 있다.

03 [A]에서는 소유가 진시황, 한나라 무제, 현종 임금을 예시로 인생의 부귀공명이 허무하다는 가치관을, [B]에서는 유도, 선도, 불도를 예시로 불도가 가장 의미 있다는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A]에는 소유가 꿈속 세계에서 한 경험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A]에 부귀공명에 대한 찬양이나 [B]에 자연 친화적 삶에 대한 부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자신이 추구해 왔던 부귀공명의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있다.

⑤ [A]에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지만 [B]에는 비유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4 ㉠ ‘구름’은 부귀공명을 이루었던 진시황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소유가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느끼는 공간이다. ㉡ ‘높은 누대’는 부귀공명을 이룬 소유가 현재 있는 공간으로 이후 자신의 부귀공명도 진시황의 구름처럼 무너지고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은 부귀공명을 이룬 진시황과 연관 있는 장소이다.

② ㉡은 소유가 부질없고 허무하게 인식하는 공간이다.

④ 소유는 자신의 부귀공명도 나중에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진시황의 부귀공명을 평가하는 것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⑤ ㉠과 ㉡은 모두 소유가 부귀공명에 대한 허무함이나 부질없음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01 소유는 자신이 살아왔던 일생을 언급하며 불승이 말한 십년간의 인연이 있을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처첩들은 소유의 불도에 귀의하고자 하는 결정에 감동하였다.

② 소유는 불승을 처음 보고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③ 불승은 소유가 꿈에서 깨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④ 소유는 처첩들이 자신의 선택을 이해해 주어서 기뻐하였다.

02 제시된 부분에서는 초월적 공간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초월적 공간을 활용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불승의 외양 묘사를 통해 불승의 비범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서술자가 ‘절로 감동하는 마음이 생겨 말했다.’나 ‘소유가 기뻐 말했다.’, ‘낮이 익은 듯하나 분명치 않았다.’처럼 인물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불승이 ‘귀인들은 잘 있는다’라는 옛말을 인용하여 소유가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⑤ 소유는 대화를 통해 자신이 불승과 십 년의 인연이 있을 수 없음을 이유를 들어 밝히고 있다.

03 ㉠은 소유가 인간 세상에서 꾸는 꿈이고, ㉡은 성진이 꾸는 꿈으로, 소유의 삶을 사는 꿈이다.

| 오답 풀이 | ② ㉠과 ㉡은 모두 불승이 꾸는 꿈이다.

③ ㉠은 소유가 전생을 확인하는 공간이 아니며, ㉡에서 소유는 미래를 경험하지 않는다.

④ ㉡에서 소유는 욕망을 달성하고 부귀영화를 누린다.

⑤ ㉠과 ㉡은 모두 소유가 원해서 꾸는 꿈이 아니다.

04 ‘불승’은 소유의 삶이 성진이 꾸는 꿈을 알리게 하여 꿈에서 깨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 오답 풀이 | ① 소유는 스스로 불도에 귀의하고자 했다.

② 소유가 처첩과 자신을 비교하여 지난날을 반성하지는 않는다.

④ 소유는 스스로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보며 부귀공명의 허무함을 깨닫는다.

⑤ 소유가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지 않고, 유교적 가치관이 지닌 가치를 알게 되지 않는다.

확인 문제 04

본문 88~89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③

확인 문제 05

본문 90~91쪽

01. ⑤ 02. ④ 03. ① 04. ②

01 불승이 도술을 활용하여 소유가 꿈에서 깨어나 성진의 현실 세계로 이동하게 하는 상황을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극적

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삽입 시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육관 대사는 호접지몽에 대한 고사를 활용하면서 성진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다.

③ 배경이 되는 시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다.

④ 유사한 유형의 두 인물을 비교하고 있지 않다.

02 성진은 꿈에서 깬 후 자신이 소유가 아닌 성진이었음을 깨닫고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던 자신을 후회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신이 성진임을 알기 전에는 불승이 자신에게 바른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환술로 놀린다고 생각하였다.

② 꿈에서 깬 후 사부가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해 부귀영화와 남녀 정욕이 헛된 것임을 알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③ 꿈을 통해 소유로서 살아왔던 모든 세속적 욕망이 일장춘몽이었음을 깨달았다.

⑤ 성진은 사부에게 ‘마땅히 인간 세상에 머물며 영영 윤회의 죄과를 받아야 하거늘 사부께서 하룻밤 꿈으로 깨닫게 해’ 주었다고 말하였다.

03 ‘옥구슬 주렴’은 소유로서 살았던 삶의 부귀공명을 상징하고, ‘백팔 염주’는 불승이 자신을 수련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성진이 살아갈 불도의 삶인 탈속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에서 현재에 대한 후회를 확인할 수 없다.

③ ㉡에서 현실 극복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다.

④ ㉢은 성진이 꿈속에서 겪었던 삶과 관련이 있고, ㉣은 성진이 겪을 삶과 관련이 있다.

⑤ ㉤에서 성진의 삶에 대한 미련을 확인할 수 없다.

04 ‘성진과 소유, 둘 중에 누가 꿈이고 누가 꿈이 아니냐’는 불승의 말을 장자의 꿈의 의미를 참고해서 보면, 성진과 소유는 같은 사람이고, 성진의 삶과 소유의 삶 중 어느 것이 꿈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강조한 말임을 알 수 있다.

확인 문제 06

본문 92~93쪽

01. ③ 02. ③ 03. ② 04. 성진(性眞)은 변치 않는 본성, 즉 진리 추구의 의미로, 성진과 팔선녀가 극락으로 갔다는 것은 불도에 정진하여 참된 본성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

01 마지막 문장인 ‘아아, 기이하다.’를 통해 서술자가 개입하여 성진과 팔선녀가 극락으로 간 것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시대적 배경에 대한 요약은 확인할 수 없다.

② 인물 간의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은 드러나지 않는다.

④ 악인의 횡포를 징벌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며, 권선징악은 이 작품의 주제와 맞지 않는다.

⑤ 인물이 불문에 귀의하여 극락에 가는 과정이 드러날 뿐 인물이 처한 긴박한 상황을 드러내는 부분은 없다.

02 육관 대사가 팔선녀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을 받았지만, 성진과 팔선녀를 비교하며 성진을 질책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육관 대사가 새로 제자들이 올 것이라고 한 말에서 팔선녀가 올 것을 알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팔선녀는 성진을 만나 가졌던 정욕을 중한 죄라고 하였다.

④ 성진과 팔선녀는 육관 대사의 강론을 통해 단번에 적멸의 도리를 얻었다.

⑤ 육관 대사는 성진의 계행이 완전함을 보고, 불법을 전하는 일을 성진에게 맡기고 서역으로 떠났다.

03 [A]에서 팔선녀는 세속적인 모습을 버림으로써 육관 대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각오를 행동으로 보여 주고 있다.

04 성진은 변치 않는 본성, 즉 진리를 추구한다는 의미에서 볼 때, 성진과 팔선녀가 극락으로 갔다는 것은 성진이 소유의 삶을 통해 깨달은 인생무상의 의미를 바탕으로 불도에 정진하여 참된 본성에 도달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성진의 이름의 의미와 극락에 가는 것의 의미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성진의 이름의 의미와 극락에 가는 것의 의미 중 어느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성진의 이름의 의미와 극락에 가는 것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00~102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5. 육관 대사는 성진에게 꿈을 꾸게 하여 양소유로서의 삶을 경험하게 하고,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세속적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불교에 귀의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게 한다. **06. ③ 07. ② 08. ④ 09.** 부귀영화의 허무함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다짐하는 과정

01 서술자는 ‘돌이켜 생각하니 ~등이 있었다.’에서 성진이 소유로 살았던 일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전지적 작가 시점이지만, 이 글에서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행위를 평가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인물들은 같은 종교(불교)를 따르고 있다.

④ 초월적 공간을 활용하여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⑤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을 병치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불승이 지팡이로 사방에 구름이 피어오르게 하자 소유가 소리를 지르는 것은 환술로 자신을 속이려고 한다고 생각하여 화를 내는 모습이므로 현실 공간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노력으로 볼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① 소유가 자신의 행적을 언급하며 불승과의 인연을 확인하는 장면에서 불승과 십 년의 인연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살아온 인생의 진실을 의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소유가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다는 불승의 말에 의심을 품고 깨우침을 요청하는 것은 소유가 의심되는 인생을 극복하려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④ 성진이 인간 세상의 재미에 대해 묻는 대사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것은 진짜라 믿었던 소유로서의 삶이 거짓임을 깨닫고 뉘우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⑤ 성진과 소유 둘 중 누가 꿈인지를 묻는 대사에게 소유가 설법을 바라는 것은 현실이 아닌 꿈과 꿈이 아닌 현실의 구분에 대한 부정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03 소유는 불승이 낮이 익은 듯하나 알아보지 못하다가 꿈에서 동정호 용왕의 잔치에서 돌아오는 길에 만났던 것을 깨닫고 부인들을 돌아보며 말했으므로 ②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불승은 ‘귀인들은 잘 잊는다’라는 옛말을 인용하여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소유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다.

③ 불승이 바른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환술로 놀린다고 말하며 소유가 크게 소리 지르는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④ 성진은 소유로 살았던 삶이 꿈이었음을 깨닫고 깨달음을 주신 불승의 ‘그 큰 은혜는 수천, 수만 겁이 지나도 갚을 수 없을 것’이라고 한 부분에서 알 수 있다.

⑤ 성진은 현실 아닌 꿈과 꿈 아닌 현실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 못한다며 사부에게 설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04 [A]는 육관 대사가 난간을 두드려 소유의 꿈을 깨우는 장면이다. 소유는 갑자기 일어난 구름이 걷히고 난 후 자신이 작은 암자의 부들자리 위에 앉아 있음을 알게 된다. 이는 소유가 성진으로 돌아온 것이므로, 꿈에서 깨어 현실로 가는 각몽의 단계인 ④에 해당한다.

05 꿈의 기능을 고려할 때, 육관 대사는 성진이 꿈을 꾸게 함으로써 양소유로서 살아가게 하는 인과 관계를 부여한다. 또한 성진을 꿈에서 깨어나게 하여, 세속적 삶의 허망함을 깨닫고 진정한 불교적 세계로 인도하여 참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꿈의 기능과 연결하여 육관 대사가 성진의 입몽과 각몽에 한 역할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육관 대사가 성진의 입몽과 각몽에 한 역할을 서술하였지만 꿈의 기능과의 연결이 미흡한 경우	중
꿈의 기능에 대해서만 언급한 경우	하

06 층층 누대는 소유가 부귀공명을 얻고 지냈던 곳이므로 세속적 욕망을 상징하는 공간이고, 작은 암자는 불승이 불법을 닦는 공간이므로 성진이 진리를 탐구하려는 본성이 있는 존재임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07 소유가 사부의 도술로 불승의 모습으로 돌아와 자신의 본모습을 오랜 후에 알게 되는 것은 소유로서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왔던 것이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일 뿐, 인간 세상에서 놀다 본성으로 돌아가는 과정의 어려움을 드러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08 유교적 사회에서는 입신양명이 이상적 가치이다. 소유가 장원급제하고,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큰 공을 세우고 조정 에 들어가 우두머리가 되어 부귀공명을 얻었던 삶은 사대부들에게 대리 만족을 주며 큰 공감을 얻었을 것이다.

09 「구운몽」은 ‘현실-꿈-현실’의 환몽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현실에서는 성진이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게 되어 인간 세상으로 추방되는 과정을, 꿈에서는 성진이 양소유로 환생하여 부귀영화를 누리지만 결국 세속적 삶의 허무함을 느끼고 불교에 귀의하고자 다짐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부귀영화의 허무함과 불교에 귀의하려는 다짐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부귀영화의 허무함과 불교에 귀의하려는 다짐 중 어느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부귀영화의 허무함과 불교에 귀의하려는 다짐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3) 현대 시의 시선

확인 문제 01

본문 106~107쪽

01. ① 02. ② 03. ③ 04.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01 화자는 우물 속 사나이를 들여다보다가 미워져 돌아가고, 돌아가다 가엾어져 다시 보고, 다시 미워져서 돌아가고, 돌

아가다 그리워지는 행동을 반복하며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과 연민의 심리 변화를 형상화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배경 묘사는 나타나지만 자연 속에서 여유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 역설적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④ 의문형 어미는 없고, 경어체의 평서형 어미만 사용되었다.

⑤ 감각적 표현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타자와의 단절된 거리감을 유지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02 2연에는 우물에 비친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에 대한 묘사가 드러날 뿐, 자연과 대상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1연에서 우물을 홀로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것은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자 시도하는 행동이다.

③ 3연에서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사나이라는 객관화된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④ 4연에서 사나이가 가엾어졌으므로 사나이에 대한 화자의 연민이 나타난다.

⑤ 5연에서 화자는 미움과 그리움의 복합적인 감정으로 갈등하고 있다.

03 ⑦은 화자가 부끄러움과 미움을 느끼면서도 연민과 그리움을 느끼는 대상이다. 대결 의지를 다지는 대상은 아니다.

04 ‘자화상’은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으로, 운동주의 시 세계가 반성과 성찰이 주된 주제를 고려하여 해석하면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의미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우물의 의미와 이를 통한 반성과 성찰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우물의 의미와 이를 통한 반성과 성찰 중 어느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우물의 의미와 이를 통한 반성과 성찰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13~114쪽

01. ② 02. ② 03. ⑤ 04. ⑤ 05. ④ 06. 우물과 구리거울은 모두 자신을 비추는 대상으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 07. ③ 08. 다시 우물로 돌아가서 사나이를 보니 미워진다. 이는 자기 성찰 과정에서 일어나는 부끄러움과 자기혐오를 의미한다.

01 이 시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상황과 자아 내면의 성찰을 고백적 어조로 홀로 노래하고 있어 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들여다봅니다’, ‘있습니다’ 등과 같이 ‘하십시오체’의 상대 높임을 사용하여 화자의 내면에 대한 성찰

과정을 고백하고 있다.

③ ‘파아란’과 같은 색채어를 활용하여 화자가 바라보는 배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④ ‘파아란’과 같이 어법에 맞지 않는 시적 허용을 통해 화자가 관찰하는 대상을 시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⑤ 자신의 내면적 자아를 사나이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미움과 연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02 이 시에는 청유형 어미를 사용하지 않았고, 화자의 간절한 소망이 드러나지도 않는다. ‘-하나다’라는 평서형의 현재형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자아 성찰에 대한 내적 고백을 하고 있다.

03 ⑩ ‘그리워집니다’는 화자가 우물을 들여다본 후에 갖는 감정으로, 현재의 행동을 후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을 보고 미움과 연민의 마음으로 내적 갈등을 겪다가 ‘그리움’을 느끼게 되고, 마지막 연에서 자아와 화해를 하며 내적 갈등을 해소하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외딴 우물’은 화자가 자아를 성찰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

② 밝은 달은 우물 속에 비친 가을밤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한 사나이’는 화자가 자신의 내적 자아를 객관화하여 표현한 시적 대상이다.

④ 화자가 사나이를 가여워하는 것은 자신에게 갖는 연민으로, 우물로 다시 돌아가는 이유가 된다.

04 ‘추억처럼’은 과거 자신의 모습에 대한 그리움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 모습에 대한 자기혐오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가만히’는 우물을 들여다보는 화자의 행동이 조심스러움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도로’는 사나이에 대한 미련을 드러내고 있다.

③ ‘그대로’는 사나이가 가엾어지기 전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④ ‘다시’는 돌아가는 화자의 행위가 반복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05 <보기>에서 ‘하늘을 향해 있는 동굴은 존재론적 본질과 관념적 질서가 있는 공간인 하늘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였다. ‘우물 속에 ‘하늘’과 ‘사나이’가 함께 나타나는 것은, 시적 화자가 스스로를 ‘그리움’이나 ‘추억’의 감정으로 포용하는 한편 평화로운 풍경과 사나이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내면의 평화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존재론적 본질과 관념적 질서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므로 갈등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6 <보기>의 시에서 화자는 구리거울로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다지도 욕될까'라고 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물과 구리거울은 모두 자신을 비추는 대상으로 자아 성찰의 매개체의 기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자신을 비추는 기능과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성찰의 매개체로서의 기능만 서술한 경우	중
자신을 비춘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 07 사나이가 가엾어서 돌아와 보니 사나이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화자의 내적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의미이지, 변하지 않는 비극적 현실에 절망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 08 이 시의 시상 전개 상 [A]에는 다시 우물로 돌아가서 사나이를 보지만 이내 미움의 감정이 발생하는 화자의 모습이 들어가야 한다. 또한 이는 자기 성찰 과정에서 발생한 부끄러움과 자기혐오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시적 상황과 자기 성찰 과정에서의 의미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시적 상황과 자기 성찰 과정에서의 의미 중 어느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시적 상황과 자기 성찰 과정에서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4) 현대 소설의 빛깔

확인 문제 01

본문 118~119쪽

01. ③ 02. ④ 03. ③

- 01 연우가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들을 때의 느낌, 낙서의 존재와 이유를 생각하는 과정의 내면 심리를 의식의 흐름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공간 이동이나 긴박한 상황은 나타나지 않는다.

②, ④ 대화나 액자식 구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묘사를 한 부분은 있으나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감각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2 지금은 그에 대해 꽤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언급했으므로 방의 전 주인에 대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오답 풀이| ① 아침에 눈을 뜨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누워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였다.

②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들으며,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것만 같다.'라며 공감하고 있으며, '설레고 벅차면서도 편안하다.'라고 느낌을 말하고 있다.

③ 벌떡 일어나 거울 앞에 가서 서 보고 벽에 그려진 얼룩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⑤ 낙서의 정체를 알게 된 후 '누굴까'라고 하며 낙서를 한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하고 있다.

- 03 '지(G)-그리핀'은 힙합 가수로 연우는 아침마다 그의 노래를 들으며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 또한 '희미한 얼룩'은 방의 이전 주인이 그린 낙서의 흔적으로 무엇을 그린 것인지,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게 하는 소재이다.

확인 문제 02

본문 120~121쪽

01. ② 02. ② 03. 채영과 함께 있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도착점에 이른 것 같고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연우는 채영으로부터 위로와 안정을 느낀 것이다.

- 01 제시된 부분에서 작품 속 인물인 연우는 스탠드에서 운동장에 있는 그 애(채영)의 모습을 관찰하고 있으며 그 애가 공을 반복적으로 던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오답 풀이| ①, ③, ⑤ 작품 밖 서술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작품 속 인물이 대화 상대가 한 말의 의미를 독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관찰한 사항과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02 ① '스탠드'는 '나'가 운동장에서 농구 골대에 공을 넣고 있는 그 애를 관찰하는 공간이다. ㉠ '운동장'에서 '나'는 '그 애의 그 모든 무게와 형체가 나를 너무나 강하게' 만들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그 애의 말에 감동하고 있으므로, 그 애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 03 채영과 함께 있으니 더 이상 방황하지 않는 도착점에 이른 것 같고, 충만함과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연우는 채영에게 위로와 안정을 느낀 것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채영에 대한 연우의 심리를 위로와 안정 등으로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채영에 대한 연우의 심리를 위로와 안정 등으로 서술하였지만 표현이 미흡한 경우	중
채영에 대한 연우의 심리를 서술하였지만 위로와 안정 등의 말이 빠진 경우	하

01. ④ 02. ③ 03. ①

01 채영이 연우에게 하는 말을 통해 부모님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알 수 있다. 또한 채영은 연우에게 여행이 싫지만 너하고라면 멀리까지 가도 될 거 같다고 말하고, 연우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건 믿는 거라고 말한다. 이처럼 대화를 통해 인물이 다른 인물에 대해 가진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02 채영과 연우는 서로 어떤 사건 때문에서 상대가 자신을 싫어하게 됐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나'는 채영과 함께 열 시간을 넘게 가야 하는 비행기를 꼭 타고 싶다고 했다.

② 채영은 비행기를 타고 세상의 끝에 가고 싶다고 했다.

④ 채영은 자신이 자랑스럽지 않게 된 다음부터 아버지가 자존심이 상했다고 말했다.

⑤ 채영은 '나'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든 미워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03 ㉠ '날짜 변경선'은 세상의 끝을 갈 때 지나야 하는 곳으로 연우가 시간을 가지고 노는 상상을 하는 계기, ㉡ '비행기'는 세상의 끝에 가는 상상이나 채영과 열 시간 동안 함께 있는 상상을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01. ④ 02. ④ 03. ④ 04. ③

01 전체적으로 '생각한다', '바라본다', '말한다', '대답한다', '어려 있다' 등 현재형으로 진술하면서 현재 상황을 생생하게 나타내고 있다.

02 '나'는 '방목되는 새끼들은 언제 자기가 어른이 됐다는 걸 알게 될까'라고 하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 막연히 어른이 된다는 것에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채영은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고 하면서 손톱을 물어뜯으려고 하고, '어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며 어른이 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⑤ 채영은 '나'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없는 것 같다고 하지만 어른은 되고 싶지 않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부러움을 드러내는 수단이 아니다.

03 '나'가 고개를 채영 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인 것은 채영의 기

대에 공감과 위로를 하기 위해 리듬을 실어 노래를 부르려 한 것으로, 이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채영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본 것은 '나'의 말이 예상하지 못한 답이었기 때문이다.

②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불안한 심리 상태에서 나타나는 행동인데, 물어뜯으려다 말고 손을 내렸으므로 불안감을 감추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③ 우주 정거장에 대해 멋진 신세계에 대한 상상이라도 하는 듯이 말하고 있으므로 기대감이 담겨 있다.

⑤ '나'를 바라보며 어떤 설렘으로 눈은 빛나고 입가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미소가 어려 있다고 했으므로 적절하다.

04 [A]에는 인물의 반복되는 행동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③의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깁깁'과 같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② '전교생 모두가 스탠드에 앉아 기다린다 해도'라고 가정하면서 웃음소리에 대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④ 웃음소리, 어두운 운동장의 대비를 통해 채영의 웃는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⑤ '맑은 음악처럼'과 같은 직유 표현을 활용하여 채영에 대한 연우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01. ③ 02. ② 03. ② 04. 어떤 목표나 도달점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01 이 작품에서는 지(G)-그리핀의 노래를 삽입하여 인물의 생각이나 심리를 집약적,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삽입된 노래는 인물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으며, '기존의 관습이나 고정 관념에 대한 저항'이라는 작품의 주제 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나'와 인물들 사이를 매개하며 사건을 전개하는 기능도 한다. 노래를 통해 등장인물들 사이에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뿐,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는다.

02 [B]는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성을 찾아갈 수 있다는 의지가 생겼음을 감각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므로 부정적 인상이 나타난다는 ②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텅빈 운동장의 하늘의 변화에 따라 인물의 변화하는 심리가 드러나 있다.

③ '깃털처럼', '뒤집힌 검은 양탄자 같고'와 같이 직유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④ '검은'과 '하얀'의 색채 대비를 통해 인물이 관찰하는 대상

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바람’, ‘구름’에 인격을 부여하여 구름의 이동 원인을 바람이 이끄는 대로 구름이 서둘러 가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03 [C]에서 바람은 기존의 질서를 부수고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게 만드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바람이 채영의 단발머리를 흩뜨려 놓고, 교복 리본도 흔들리고 스커트도 흔들린다고 하였으므로, 그런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통해 채영의 심리 변화를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하늘의 모습은 인물이 관찰하고 있는 것을 묘사한 것으로, ‘나’와 채영의 위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③ 반복해서 부는 바람은 ‘나’와 채영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표현한 것으로, 소망이 좌절되는 상황은 아니다.

④ 주변의 상황과 채영이 대비되지 않으며, ‘나’가 느끼던 불안감은 해소되고 있다.

⑤ 후회가 아니라 새로운 기대와 설렘이 나타난다.

04 ‘어른’이 되어야 하는 시간적 제약과 기성세대들의 기준 등에 대해 불안해하는 인물들에게 있어 ‘어디로 가냐고’ 묻는 것은 정해진 목표나 도달점을 묻는 것이다. 그것을 묻지 않는 것이 기본이 좋다는 것은 어떤 목표나 도달점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인물들의 상황과 현재 기분의 의미를 모두 서술한 경우	상
목표가 정해지지 않은 인물들의 상황과 현재 기분의 의미 중 어느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인물들의 상황과 현재 기분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35~138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① 05. ③ 06. 채영의 ‘꿈’은 아버지가 강요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느끼는 부담과 불안을 상징한다. 이러한 의미를 고려할 때 비행기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채영의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07. ③ 08. ⑤ 09. ① 10.** 날개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이다. **11.** 우주는 미지의 세계이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 세계이다. 노래 가사처럼 빛이 있는 공간이며 연우와 채영이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즉, 우주 정거장은 자신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연우와 채영이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12. ②**

01 연우와 채영이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서술자는 ‘나’(연우) 한 사람이다.

③, ④ 현재와 과거를 교차하는 장면의 전환이나 세밀한 행동 묘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동시에 벌어진 사건들이 아닌 대화의 흐름대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02 비행기를 탔을 때 ‘시간은 조금도 흐르지 않고 장소가 옮겨진 것 같았’다는 채영의 말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물리적 개념으로서의 시간에 대한 환상적 상상으로 인물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해 보게 하는 계기이지, 물리적 시간에 대한 인물의 무기력함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03 채영에게 아빠는 자신의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하는 존재이며, 연우에게 엄마인 신민아 씨는 연우를 질서에 구속시키지 않아 연우 스스로 자신을 방목되는 존재로 인식하도록 한다.

04 [A]에는 날짜 변경선에 대한 연우의 생각과 상상이, [B]에는 어른이 된다는 말에 대한 연우의 심리가 내적 독백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A]와 [B]에 모두 작품 밖 서술자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A]는 인물의 과거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고, [B]는 인물의 현재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05 <보기>에서 연우와 채영은 모두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거나, 누군가의 기준에 얽매어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불안과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하였다. ‘어른’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는 시간이 지나면 막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존재이다. 채영이 연우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런 게 없는 것 같’다고 하자, 연우는 ‘대신 난 어른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즉, 연우는 어른은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서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06 채영이 연우에게 언급한 가족에게 버림받는 꿈은 채영이 아버지가 강요하는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느끼는 부담과 불안을 상징한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고려할 때 비행기는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채영의 심리를 부각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꿈의 의미와 비행기의 기능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비행기의 기능을 서술하였지만 꿈의 의미를 밝히지 못한 경우	중
꿈의 의미와 비행기의 기능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07 나. 이 글은 인물의 독백과 현재 시제를 사용해 사건을 생동감 있게 전달하고 있다.

ㄷ. 바람이 불고 구름이 많은 운동장의 하늘을 서정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심리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 풀이| ㄱ. 이 글은 주인공인 연우의 시점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시점에 변화를 주어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ㄹ. 이 글에서 인물의 회상이나 인물 간의 갈등은 드러나지 않는다.

08 연우와 채영이 어디로 가냐고 묻지 않는 것은 어떤 목표나 도달점이 없어도 타인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고유성을 찾아간다는 의미이므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청소년의 불안감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09 ‘거울’은 인물이 현실을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어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소재이며, ‘바람’은 기존의 관습이나 기준에 얽매어 있던 인물이 자신만의 고유성을 찾아가는 다짐으로 심리가 변화하는 것을 상징하는 소재이다.

10 <보기>에서는 ‘지(G)-그리핀’이 아닌 ‘연우-그리핀’이 탄생하는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전 방의 주인이 그린 새보다 훨씬 크고 웅망하고 자유로운 그리핀이 되어 날개를 펼치고 날아가는 것이다. 그것은 나의 고유한 이름을 갖게 될 것이며, 고유한 자신이 되어 자신만의 이상을 찾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날개는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물임을 알 수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날개의 의미를 <보기>와 연관 지어 적절하게 쓴 경우	상
날개의 의미를 <보기>와 연관 짓지 않고 쓴 경우	중
날개의 의미를 명확하게 쓰지 못한 경우	하

11 우주는 미지의 세계이면서 현실을 뛰어넘는 이상을 의미한다. 노래 가사에 나와 있듯이, 우주는 빛이 있는 공간이며 연우와 채영이 함께 가고 싶어 하는 곳이다. 즉, 우주 정거장은 자신의 고유성을 지킬 수 있는 공간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서 연우와 채영이 가고자 하는 공간이다.

|서술형 평가 기준|

우주와 우주 정거장의 의미를 노래 가사와 연관 지어 서술한 경우	상
우주와 우주 정거장의 의미를 서술하였으나 노래 가사와 연관 짓지 못한 경우	중
우주와 우주 정거장의 의미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12 이 작품과 같은 인터넷 연재 소설은 작가와 독자 간에 쌍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으며, 독자들 간에도 자신의 생각이나 감상을 다른 독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다. 인터넷 소설이라고 해서 전문적인 비평가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전문적인 비평가뿐만 아니라 비전문적인 다수의 다양한 독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과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인터넷 소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42~147쪽

01. ① 02. ② 03. ㉔: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㉕: 자연물을 들일 수 있다 04. ⑤ 05. ㉔는 부귀공명을 누린 양소유의 삶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소유가 이룬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06. ① 07. ④ 08. ③ 09. ④ 10. ⑤ 11. ② 12. ④ 13. ⑤ 14. ① 15. ③ 16. ② 17. 연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공감하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설렘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 18.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인물들이 현실을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지향과 기대를 드러냄으로써 자아 완성의 과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01 (나)는 세속을 떠나 자연에 은거하며 안분지족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태도를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 친화적 태도는 당시 조선 사대부의 가치관과도 맞닿아 있다.

|오답 풀이| ② (나)에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비롯된 삶에 대한 회의적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서 누이의 죽음이라는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 상황에 당면했지만 종교적으로 승화하고 있다.

④ (가)와 (나)에 인간과 자연의 대비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⑤ (나)에는 초월적인 공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가)는 ‘아아’를 기점으로 시상이 전환되면서 주제가 드러난다. 향가 낙구의 감탄사가 시조 종장의 첫구 3음절에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지만, 초장의 첫구와는 관련이 없다.

|오답 풀이| ① (나)는 초, 중, 종장 세 개의 의미 단락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10구체 향가인 (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다)의 초장과 종장이 4음보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 중, 종장이 모두 4음보를 형성하고 있는 (나)를 변형하여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다)의 종장은 길이의 제약이 없다는 점에서 종장도 길이의 제약을 받는 (나)를 변형하여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다)의 ‘모처라’는 (가)의 ‘아아’와 같이 시상을 집약하는 감탄사라는 점에서 향가인 (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 03** (가)에서는 이원적으로 나누어져 존재하는 현세와 미타찰이라는 초월적 공간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나)에서는 자신이 만든 공간인 초려 삼간에 달 한 간, 청풍 한 간 맡긴다고 하여 자연물을 들일 수 있다는 독특한 발상을 하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와 ㉡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와 ㉡를 모두 서술하였으나 표현이 어색한 경우	중
㉠와 ㉡ 중 하나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하

- 04** 작품 전체적으로 환몽 구조이지만, 제시된 부분에서는 이야기 속에 이야기를 삽입하여 인물의 과거를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사부의 도술로 성진이 꿈에서 깨어 현실의 천상계로 다시 돌아오거나 황건역사를 따라 풍도 지옥에 간 일 등의 환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일장춘몽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② 이 글은 이야기 밖의 서술자가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③ 사부의 도술과 같은 전기적 요소를 통해 중심 인물의 '취한 것도 같고, 꿈꾸는 것도 같'은, '황홀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④ 불승의 외양을 묘사하면서 '푸른 눈은 물결처럼 맑았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 05** <보기>에서 서술자가 하는 인물의 상황이나 심리 요약의 기능으로 볼 때, ㉠은 소유가 겪었던 삶에 대한 요약적 진술로 양소유로서 살아온 삶이 모두 꿈속의 일이었음을 깨닫는 부분이다. 즉 ㉠은 부귀공명을 누린 양소유의 삶의 과정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소유가 이룬 것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드러내는 기능을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의 내용과 기능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의 내용과 기능 중 어느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의 내용과 기능을 모두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 06** 승상은 처음에 사부가 바른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환술로 놀린다고 생각했으나, 꿈에서 깨어나 본래의 모습을 깨달았으므로 불승의 의도를 의심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② 승상은 불승의 도움으로 자신이 연화도량의 성진임을 알게 되었다.

③ 승상은 불승의 행색이 범상치 않음을 보고 보통 승려가 아닐 것이라고 짐작했다.

④ 승상은 불승을 보고 꿈에서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며 낮

이 익은 듯하다고 여겼다.

⑤ 승상은 불승이 말하는 십 년의 인연을 기억하지 못하고 불승에게 가르침을 부탁했다.

- 07** 인간 세상에서 함께했던 처첩들이 꿈에서 깨어나자 사라지는 모습은 소유의 삶이 성진의 꿈에 불과했음을 통해 세속적 가치의 무의미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주제 의식과는 관련이 없다.

| 오답 풀이 | ① 소유라는 이름은 세속적 가치에 대한 성취로 볼 수 있으므로 열여섯에 과거에 급제한 다음 계속 벼슬을 한 소유의 삶은 이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② 소유에게 아직도 꿈에서 깨지 못했다고 하면서 도술을 부려 꿈에서 깨우는 불승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조력자라 할 수 있다.

③ 꿈에서 깨어난 자신이 대승상이 아닌 젊은 불승임을 깨닫는 성진의 모습에서 참된 진리를 탐구하는 성진이라는 이름의 상징적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인간 세상에서 장원급제하고 한가로이 처첩들과 음주와 가무를 즐겼던 일의 진실을 깨닫는 성진의 모습은 세속적 가치의 무의미함을 보여 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 08** ㉠은 성진의 꿈속에서 소유가 꾸는 꿈이므로, 소유가 꿈에서 깨어나더라도 자신이 성진임을 알지는 못한다. 소유는 ㉠에서 깨어나 자신이 성진임을 깨닫게 된다.

| 오답 풀이 | ① 소유는 ㉠의 동정호 용왕의 잔치에서 불승을 만났다.

② ㉠은 성진의 꿈속에서 소유가 꾸는 꿈이므로 몽중몽이다.

④ ㉠은 성진이 소유의 삶을 꿈으로 꾸고 있는 것이다.

⑤ 성진이 꾸고 있는 ㉠에서 소유는 자신이 성진임을 알지 못한다.

- 09** <보기>에서 육관 대사는 호접지몽(胡蝶之夢)의 고사를 인용하여 인간 세상과 꿈의 구별이 무의미함을 일깨운다. 이러한 육관 대사의 말은 꿈과 현실이 다르지 않고, 성진과 양소유가 다르지 않으니 꿈과 현실을 구별하려는 생각조차 버려야 함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 10** 이 시에서 2연과 6연의 반복, '돌아가다 생각하니', '미워져 돌아갑니다' 등의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며 화자의 내적 갈등으로 유발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③ 우물 속에 비친 자연의 풍경이 제시되어 있지만, 자연의 변화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파아란 바람'에 색채 이미지가 드러나지만, 색채 대비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 11** 이 시에서 화자는 우물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애증

의 감정을 가진다.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우물을 보며 추억처럼 있는 사나이를 보게 되는데, 이는 순수했던 과거 자신의 모습이자, 화자가 바라는 이상적 자아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12 도로 우물로 왔다가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가는 것은 미움과 연민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자아에 대한 미움의 감정을 드러낸 것이지 성찰에 대한 좌절과 절망으로 볼 수 없다.

13 ㉞는 작품이 독자에게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으로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우물 속에 비친 아름다운 풍경은 화자가 처한 현실과 대비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이다.

② 역사적 사명에 대한 자각은 있지만, 강한 의지적 태도는 드러나지 않는다.

③ 화자의 심리 변화는 나타나지만 어조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④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이 아니라 자기 독백체의 형식이다.

14 (가)는 '나'의 내면 독백을 통해 지(G)-그리핀의 음악과 낙서에 대한 심리를, (나)는 채영과 연우의 대화를 통해 불안감과 세상의 끝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가)에 인물의 외양 묘사가, (나)에 배경의 묘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나)에는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④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고 있다.

⑤ (나)에서 부모님과 채영의 갈등이 드러나긴 하지만, (가)와 (나) 모두 인물 간의 대립으로 긴장감이 고조되는 것은 아니다.

15 비행기를 탔을 때 시간은 조금도 흐르지 않고 장소만 옮겨진 것 같다는 채영의 생각은 비현실적 상상으로 불완전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드러낸 것이므로 '성취와 도달을 위한 자기 극복'으로 보는 시각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방의 전 주인이 그려 놓은 낙서에서 방의 전 주인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소망을 표현했음을 알 수 있다.

② 연우가 날짜 변경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시간을 갖고 노는 상상을 한 것은 현실에서 불가능한 상상을 한 것이다.

④ 열 시간 넘게 가는 비행기를 채영과 함께 타고 가며 채영이 자신의 곁에만 있기를 바라는 연우의 생각에서 채영에 대한 호감을 엿볼 수 있다.

⑤ 부모가 당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자신을 싫어한다는 채영의 말에서 기성세대가 강요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다.

16 (가)의 '새의 그림'은 방의 이전 주인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나)의 '세상의 끝'은 채영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태도를 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과 ㉡에는 모두 인물이 자신을 성찰하는 계기가 담겨 있지 않다.

③ ㉢과 ㉣에는 모두 인물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담겨 있다.

④ ㉤과 ㉥에는 모두 인물이 지향하는 개인적 가치가 담겨 있다.

⑤ ㉦에는 인물이 다른 인물(방의 이전 주인)에게 느꼈던 호기심이나 궁금함이 담겨 있다.

17 연우는 지(G)-그리핀의 음악을 듣고 있으면 '그 모든 말이 내 입에서 흘러나온 것만 같다'고 하며 '설레고 벅차면서도 편안하다'고 하였다. <보기>의 소설 속 음악의 기능을 고려할 때, 지(G)-그리핀은 연우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공감하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설렘과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인물의 성찰과 심리 안정의 기능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인물의 성찰과 심리 안정의 기능 중 하나만 서술한 경우	중
인물의 성찰과 심리 안정의 기능을 모두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18 <보기>에서 제시한 성장 소설의 특징을 고려할 때, 이 글에 '비행기'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행동하지 않는 인물들이 현실을 벗어나 오롯이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세계에 대한 지향과 기대를 드러냄으로써 자아 완성의 과정을 이루게 될 가능성을 보여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현실을 벗어난 다른 세상에 대한 지향과 자아 완성의 과정을 모두 서술한 경우	상
현실을 벗어난 다른 세상에 대한 지향과 자아 완성의 과정 중 일부만 서술한 경우	중
다른 세상에 대한 지향과 자아 완성을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3. 사례 깊고 책임감 있는 소통

(1) 함께 만족하는 협상

확인 문제 01

본문 154~155쪽

01. ② 02. ⑤ 03. 동아리 측은 공연 장소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의 소극장을 빌리기 위한 목적으로 협상에 임하였고, 주민 측은 소극장을 외부에 대여해 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협상에 임하였다.

01 협상은 양측의 이해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갈등을 조정하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목적의 발화이다.

| 오답 풀이 | ① 객관적인 정보의 효과적인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는 발표이다.

③ 논거를 바탕으로 하여 자기 주장의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는 토론이나 연설이다.

④ 상호 공감을 통한 대인 관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는 대화이다.

⑤ 사실 및 의견의 교환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발화는 토의이다.

02 주민 측은 ㉠의 장애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에 대한 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한 것이다. 즉 ㉡을 해결하기 위해 ㉠의 장애 요소가 해소되어야 함을 주장한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측은 ㉠을 위해 협상에 참여한 것이므로, ㉠이 협상의 목표라고 할 수 있다.

② 주민 측은 ㉠을 이유로 들어 ㉠을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③ 동아리 측은 풀빛고등학교 학생 절반가량이 다빛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특성을 근거로 제시하여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다는 ㉠의 주장을 약화시키고 있다.

④ 동아리 측이 ㉡의 해결책으로 주민 측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제시하면 ㉠에 대한 주민 측의 수용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03 동아리 측의 요구 사항은 주민 문화 센터의 소극장을 빌리는 것이고, 주민 측의 요구 사항은 아파트 내 시설을 외부에 대여할 때 이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이 협상에 임하게 된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	---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이 협상에 임하게 된 이유를 다소 부족하게 서술한 경우	중
협상에 임하게 된 이유를 어느 한쪽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156~157쪽

01. ⑤ 02. ④ 03. ③

01 합의 결과 이행을 위한 의무 수행의 약속은 제시된 글의 협상 단계에서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 참여자인 동아리 측이 주민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이익과 관련하여 입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② 양측의 협상 참여자는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표 아래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③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은 협력적 경쟁 관계에 있는 협상 참여자이다.

④ 노인 학교의 연극 활동 지원과 관련된 쟁점을 조정하기 위해 양측이 함께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02 동아리 측에서 소극장 대여 외에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 측이 동아리 측의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측은 주민 측에 이익이 될 만한 방안으로, 다빛아파트의 주민들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동아리 측은 소극장 대여를 관철하기 위해 상대측이 요구한 노인 학교 연극 활동 지원을 약속하였다.

③ 주민 측은 동아리 측이 제시한 주민들의 공연 관람 방안 외에 노인 학교 연극 활동 지원이라는 실질적인 이익 방안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⑤ 주민 측은 노인 학교 연극 활동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동아리 측이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을 요청하였다.

03 [A]에서 협상의 참여자들은 ‘학업과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의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든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와 같이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며 우호적인 자세로 소통하고 있다.

확인 문제 03

본문 158~159쪽

01. ⑤ 02. ③

01 주민 측은 ㉠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의 이행을 약속하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측은 공연 직전 무대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공연의 특성을 근거로 들어 연습 장소 및 시간과 관련된 요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② 주민 측은 관리 직원의 근무 시간을 근거로 들어,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연습하도록 해 달라는 동아리 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혔다.

③ 동아리 측은 주민 측의 입장을 인정하고 연습 시간을 조정할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④ 양측은 동아리 측의 제안과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의안을 도출하였다.

02 동아리 대표가 ㉠처럼 말한 것은, 말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자신이 협상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있음을 드러내고자 한 것이다.

확인 문제 04

본문 160~161쪽

01. ㉡ 02. ㉠

01 주민 대표는 주민 연극 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2~3명씩 당번을 정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뵙겠다고 한 동아리 대표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하였다. 따라서 동아리 대표의 조정안을 수정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대표는 상대방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연기 기초 훈련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였다.

② 동아리 대표는 평일 낮 공연을 보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토요일 오후 3시에 공연을 추가하는 양보안을 제시하였다.

③ 동아리 대표는 저녁에 공연을 할 경우 학생들의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음을 들어, 주민 대표가 제안한 공연 시간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④ 주민 대표는 ‘학기 중에 시간을 내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 저희의 요구가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와 같이 동아리 측의 입장에 공감하고 있음을 표시하였다.

02 ㉠은 동아리 대표가 제시한 공연 일정에 문제가 있음을, ㉡은 동아리 대표가 제시한 방안이 주민 측이 생각한 방안과 차이가 있음을 밝힌 것이다. 즉 ㉠과 ㉡은 모두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제시한 발화라고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② 상대가 지닌 약점을 드러내어 이익을 최대화하지는 않았다. 동아리 대표가 제시한 방안에 대해 해결해야 할 문제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③ 상대의 주장을 수용하는 데 필요한 선결 요건은 제시하지 않았다.

④ 자신의 제안에 담긴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지는 않았다.

⑤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확인 문제 05

본문 162~163쪽

01. ㉣ 02. ㉡ 03. ㉢, 이유: 동아리 측의 상황을 이해하면서 양보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주민 대표의 태도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여 공감하며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01 ㉠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동아리 측은 저녁 시간에 공연을 할 수 없겠냐는 상대측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토요일 오후 3시 공연을 추가하는 양보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 오답 풀이 | ① 토요일 공연이 추가된 것은, 공연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상대측의 제안을 동아리 측이 수용하는 대신 공연을 추가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이것은 동아리 측의 관점에서 상대측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반영한 결과로, 자신의 요구안을 유지한 것은 아니다.

② 동아리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주민 측에 이해를 구한 것은 맞지만 주민 측의 요구를 거절하려고 했다가보다 양측의 입장을 좁히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동아리 측은 주민 측과 서로 양보를 통해 협상을 이끌어 낸 것이다. 자신들의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주민 측에도 더 큰 이익이라고 언급하지는 않았다.

⑤ 동아리 측은 연극 공연 일정에 대한 주민 측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밝혔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02 문제 상황을 공유하면서 협상 참여자들의 기본 입장을 서로 확인하는 단계는 시작하기 단계이다.

03 ‘학기 중에 시간을 내려면 어려움이 많을 텐데’는 상대방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여 공감하는 태도로 볼 수 있다. 또한 ‘저희도 여러분이 편안하게 연습과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는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협상 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해당 평가 항목과 그 이유를 모두 적절하게 제시한 경우	상
해당 평가 항목과 그 이유를 모두 제시하였으나, 그 내용이 다소 미흡한 경우	중
해당 평가 항목을 제시하였으나, 그 이유를 잘못 제시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6

본문 164~166쪽

01. ㉡ 02. ㉢

01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타협점을 찾는 상황에서 필요하다. 각자가 원하는 이익을 얻기 위해 양보

와 조정을 통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②는 찬반의 의견을 나누고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토론이 필요한 상황이다.

- 02** 협상을 할 때에는 예상되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상대측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검토하여 양보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합의를 유도하고, 서로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협상을 준비할 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②, ④, ⑤ 조정하기 단계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68~170쪽

01. ② 02. ④ 03. ⑤ 04. ⑤ 05. ㉠와 ㉡는 모두 상대방의 어려운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화로, 협상 참여자 간에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06. ⑤ 07. ⑤
08. 4. 소음 및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아리 측은 공연장 주변에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도록 하는 캠페인도 진행한다. / 5. 공연 후에 무대 정리와 무대 주변 청소는 동아리 측에서 하고 나머지 구역의 청소는 주민 측에서 한다.
09. ㉡는 협상의 목적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하는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 01** 협상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두 주체가 갈등의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발화이다.
| 오답 풀이 | ① 발표, ③ 토론, ④ 대화, ⑤ 토의의 발화에 해당한다.

- 02** 노인 학교에서 기획하는 연극 공연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연극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극장의 대여와는 상관 없는 일이다.

| 오답 풀이 | ①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에 있는 소극장을 동아리 공연 장소로 빌리고 싶어서 미리 말씀드렸었는데요, 주민들과 논의해 보셨나요?'를 통해 동아리 대표가 소극장 대여에 대한 상대측 논의의 진행 여부를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그런데 왜 학교 동아리의 연극 공연을 학교가 아닌 우리 아파트 문화 센터의 소극장에서 하려고 하나요?'를 통해 소극장 대여를 요구하게 된 배경을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그렇지만 다빛아파트 주민 문화 센터는 다빛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문화 시설로, 지금까지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를 통해 주민 대표가 기존의 관례를 근거로 들어 소극장 대여의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 주신다니 고맙습니다. 그

렇다면 저희도 소극장을 여러분께 기꺼이 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통해 동아리 측이 노인 학교의 연극 공연 지원을 약속함으로써 소극장 대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03** [E]는 상대측의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묻는 발화이다. 따라서 상대측이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방안의 확인과 수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 오답 풀이 | ① [A]는 지금까지 아파트 문화 센터를 외부 기관에 대여한 적이 없다는 주민 측 주장을 약화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다.

② [B]는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과 불편함에 상응하는 이익의 제공을 동아리 측에 요구하는 주민 측의 발화이다.

③ [C]는 동아리 측이 주민 측에 제공할 수 있는 이익(공연 관람)과 그에 따르는 효용 가치를 언급한 발화이다.

④ [D]는 상대측의 요구를 수용할 때 발생할 관리 비용과 불편함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다 실질적인 이익의 제공이 필요함을 언급한 발화이다.

- 04** ㉠은 동아리 측이 소극장을 빌리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고, ㉡은 주민 측이 노인 학교의 연극 공연과 관련하여 동아리 측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한 것이다. ㉠과 ㉡은 모두 발화자가 요구하는 사항의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수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05** ㉠와 ㉡는 상대측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발화이다. 이러한 발화는 협상 참여자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와 ㉡의 공통적인 기능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와 ㉡의 공통적인 기능을 다소 미흡하게 서술한 경우	중
㉠와 ㉡의 기능을 각각 서술한 경우	하

- 06** 동아리 측은 공연 후 문화 센터 안팎을 모두 청소하기 어려운 입장을 말하였고, 주민 측이 이에 공감하여 객석 및 문화 센터 주변 청소를 돕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에 대한 대가로 주민 측이 공연 후에 문화 센터 주변을 청소해 줄 것을 동아리 측에서 요청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동아리 측은 공연 1주일 전부터 소극장에서 연습을 해야 함을 근거로 들어 주민 측이 소극장을 연습 공간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② 동아리 측은 공연 1주일 전부터는 매일 오후 4시부터 9시까지 연습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주민 측은 관리인의 근무 시간을 이유로 들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③ 동아리 측은 상대측 사정에 따라 연습 시간을 축소할 수 있다는 입장에 따라 일주일 동안 7시까지, 단 공연 전날은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양보안에 합의하였다.

④ 동아리 측은 소음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주민 민원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주민 측이 제기한 우려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였다.

07 ㉠은 주민 측이 요구한 청소와 관련하여 동아리 측이 공연 직후 문화 센터 안팎의 청소를 모두 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따라서 ㉠은 상대방이 요구한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대방의 양보를 유도한 발화라고 할 수 있다.

08 이 협상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4번에는 주민 민원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동아리 측이 이행할 합의안이, 5번에는 청소와 관련하여 동아리 측과 주민 측이 이행할 합의안이 들어가야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4번과 5번에 들어갈 합의안의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쓴 경우	상
4번과 5번 중 어느 하나만 적절하게 쓴 경우	중
4번과 5번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다른 내용이 들어간 경우	하

09 ㉡는 동아리 대표가 협상의 목적과 협상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듣고 말한 것으로, 적극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협상 과정에 임했음을 보여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말하기 태도와 관련지어 책임감 있는 태도가 언급되어 있는 경우	상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해 언급되어 있으나 문장 표현이 어색한 경우	중
책임감 있는 태도에 대한 언급 없이 다른 내용을 적은 경우	하

(2) 작문 관습을 고려한 글쓰기

확인 문제 01

본문 174~175쪽

01. ④ 02. ④ 03. 일제 강점기 양곡 창고의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예술촌의 겉모습이 창고 그대로다.

01 여정이란 여행의 과정이나 일정, 여행 경로를 의미한다. 이

글에는 삼례에 있는 문화 예술촌에 가서 미디어 아트 전시관에 간 여정뿐만 아니라 '아날로그의 세계에서 ~세상이 펼쳐져 있다.'와 같은 감상도 드러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여행을 바탕으로 작성한 기행문의 양식을 따르고 있다.

② 삼례의 문화 예술촌이 일제 강점기에 양곡 수탈 기지였다는 아픈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

③ 여정, 견문, 감상이 잘 드러난 기행문이므로 기행문 작성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⑤ 삼례의 문화 예술촌은 역사와 문화 예술이 담긴 여행지이므로 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예상 독자가 될 수 있다.

02 글쓴이가 삼례에서 멈춘 이유는 꼭 한번 가 보리라 버르던 문화 예술촌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03 글쓴이가 마주한 삼례에 있는 문화 예술촌의 모습은 문화 예술촌이 갖는 일반적인 이미지와는 달랐다. 일제 강점기에 사용된 양곡 창고를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고 개조해 꾸몄기 때문에 예술촌의 겉모습은 창고 그대로의 모습이라 ㉠과 같은 반응이 나올 법하다고 한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삼례 문화 예술촌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어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상
삼례 문화 예술촌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관련지었으나 내용이 미흡하거나 한 문장으로 서술하지 않은 경우	중
한 문장으로 서술하였으나 삼례 문화 예술촌에 담긴 역사적 사실과 관련짓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176~177쪽

01. ① 02. ⑤ 03. ③

01 이 글은 기행문으로 여정에 따라 경험한 일(견문)과 그에 대한 생각(감상)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교훈이 담긴 문구를 제시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용어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여행 중 만난 사람의 말을 인용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이 글은 객관적인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글이 아니고, 여행 중 느낀 감정을 생생하고 솔직하게 제시하고 있다.

02 글쓴이는 삼례의 문화 예술촌 주변의 사물들이 어우러진 모습을 보며 시간 위에 모든 것들이 공존하며 하나로 이어져

흘러가고 있음을 느낀다. 이런 느낌 때문에 글쓰이는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신한 듯한 세상이 낯설지 않은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카페는 휴식 공간이자 커피와 관련된 교육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공존한다는 내용은 없다.

② 예술촌에서 주변 사물이나 건물, 디지털과 아날로그,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잘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낯설지 않다고 하였으므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③ 글쓰이는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잘 어우러진 모습을 보고 있으므로 아날로그 세상에 더 익숙하다고 볼 수 없다.

④ 글쓰이가 미디어 아트 미술관에 들어갔을 때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세상으로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있으나, ㉠처럼 생각한 이유와는 거리가 멀다.

03 ㉠은 글쓰이가 책 박물관에 가서 화가들이 그린 책 표지 중 김환기가 디자인한 운동주의 시집을 본 것을 표현한 견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책 공방에서 목계선을 본 감상을 표현하였다.

② 문화 예술촌의 동과 동 사이를 이동하며 느낀 감상이다.

④ 목공소의 깔끔하고 조용한 내부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였다.

⑤ 카페에서 내다본 풍경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였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84~186쪽

01. ① 02. ④ 03. ② 04. ④ 05. ① 06. ④ 07. ④
08. ② 09. ④ 10. ⑤ 11. ①

01 (가)의 중심 내용은 글쓰이가 찾아가고 싶었던 푸른 강, 넉넉한 품으로 평야 지대를 흐르는 만경강의 모습이다.

| 오답 풀이 | ② 글쓰이가 삼례에서 멈춘 이유가 꼭 가 보고자 했던 문화 예술촌이 있기 때문임이 드러나 있다.

③ 창고로 이루어진 삼례의 문화 예술촌의 모습에 대한 소개가 제시되어 있다.

④ 일제 강점기 삼례의 문화 예술촌에 담긴 가슴 아픈 역사가 제시되어 있다.

⑤ 삼례의 문화 예술촌의 역사와 현재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02 삼례의 문화 예술촌은 원형이 보존된 커다란 목재 창고 여섯 동이 문화 예술 공간으로 운영된다고 하였다.

03 이 글은 기행문으로, 기행문의 목적은 여정, 견문, 감상을 전달하는 데 있다. 이 글에는 삼례에 있는 문화 예술촌에 가

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 바가 쓰여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 글은 기행문이므로 실태를 조사하고 보고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

③ 삼례의 문화 예술촌에 담긴 슬픈 역사가 제시되어 있는 하나,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삼례의 문화 예술촌에 담긴 역사가 제시되어 있지만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

⑤ 이 글은 기행문이므로 기행문 쓰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 예상 독자가 될 수 있다.

04 이 글은 기행문으로, 정보 전달의 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행지에서 여정에 따라 보고 들은 내용과 글쓰이의 느낌이나 감상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으므로,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하겠다는 글쓰기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05 디자인 박물관이 젊은 방문객들이 무척 좋아하는 공간이라는 견문이 제시되어 있지만, 글쓰이가 예술촌에서 디자인 박물관을 가장 좋아하는 장소로 꼽는지는 알 수 없다.

| 오답 풀이 | ② 목공소에 전시된 작품을 보며 담백한 느낌이라 마음이 편안하다고 하였다.

③ 미디어 아트 미술관을 들어서자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을 받았다고 하였다.

④ 문화 카페에서 통유리로 내다보이는 풍경이 눈을 떼지 못할 만큼 매혹적이라고 하였다.

⑤ 카페에서 나와 보이는 삼례 성당도 창고 건물들과 애당초 한 식구였던 듯 잘 어우러져 있다고 하였다.

06 글쓰이는 창고 그대로의 외관을 배신이라도 하듯 '첨단 예술'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고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을 받았다.

07 기행문의 요소인 여정, 견문, 감상 중 ㉠은 감상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견문에 해당한다.

08 작문 윤리는 책임감 있게 글을 쓰기 위해 글쓰이가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이다.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는 논거의 제시 '기행문'이라는 글의 유형에 적용할 항목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글쓰이의 생각이나 경험을 쓸 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실하게 써야 한다.

③ 글쓰이가 보고 들은 내용은 허위 사실을 기재하지 말아야 한다.

④ 인터넷이나 도서 등에서 타인의 자료를 활용하여 글을 쓸 때는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⑤ 글을 쓸 때 내용을 과장하거나 축소, 왜곡해서 쓰지 말아야

야 한다.

- 09 작문 관습이란 언어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글쓰기의 약속이나 규칙으로, 의사소통의 형식과 내용 모두를 포함한다.

|오답 풀이| ① 작품 관습은 언어 공동체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글쓰기의 약속이나 규칙이므로, 이는 언어 공동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② 글의 종류에 따라 지켜야 할 언어 관습이 다르므로 이에 따른 글쓰기를 해야 한다.

③ 독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글쓰기는 전통적인 작문 관습이다.

⑤ 글의 종류에 따른 전형적 구조, 즉 기행문은 기행문의 구조, 연설문은 연설문의 구조를 따르면 효과적인 글쓰기가 가능하다.

- 10 글을 쓸 때 글의 종류에 따른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면 공동체의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기사문'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고 올바르게 전하는 것, 즉 공정성을 갖추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소개하는 글은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정보나 특징이 잘 드러나도록 정리하고, 정중하고 공손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② 환영사는 청중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심을 담아 표현하고, 신입 회원과 기존 회원 간의 친밀감을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표현을 제시한다.

③ 건의문은 문제를 해결해 주도록 독자를 설득하는 글이므로 문제 상황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며 격식과 예의에 맞게 표현해야 한다.

④ 정보를 제시하는 글은 정보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를 수집, 선별하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전달 방식(사진, 그림, 도표 등)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달한다.

- 11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쓰고자 하는 글의 주제와 목적, 예상 독자를 설정한다. 글의 목적과 예상 독자에 맞는 자료를 수집하였는지 점검하는 단계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이다.

|오답 풀이| ② 내용 생성하기 단계에서는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고 자료를 수집한다.

③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는 핵심적인 내용과 자료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조를 정리한다.

④ 표현하기 단계에서는 앞에서 생성하고 조직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한다.

⑤ 고쳐쓰기 단계에서는 작성된 글을 점검하여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여 글의 완성도를 높인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190~193쪽

01. ② 02. ③ 03. [A] 교섭 범위, [B] 주민 대표 최종 양보점, [C] 동아리 대표 최종 양보점 04. ⑤ 05. ③ 06. ④ 07. ② 08. ⑤ 09. ⑤ 10. 아날로그와 디지털, 마당 곳곳의 조형물,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져 공존하는 삼례의 문화 예술촌을 보며 시간 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11. ③

- 01 제시된 협상은 해결 단계로 주민 측과 동아리 측에서 공연 일정, 연극 활동 도움 등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타협과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고 있다.

|오답 풀이| ①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여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 ③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 위해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은 시작 단계이다.

④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혀 가는 것, ⑤ 상대방이 제안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의견 차이를 좁히는 것은 조정 단계이다.

- 02 ㉔은 협상을 통해 얻게 될 상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 측에서 얻게 될 이익에 대한 질문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은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저녁 공연의 가능성 여부를 묻고 있다.

② ㉔은 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고려할 때,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운 여건임을 밝힌 것이다.

④ ㉔은 상대방이 제공하기로 한 노인 학교 연극 활동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은 것이다.

⑤ ㉔은 학생인 자신들의 입장과 동아리 공연 일정 등을 고려하여 노인 학교 연극 지원 활동의 계획을 제시한 것이다.

- 03 주민 측에서 연극 활동을 위해 동아리 측에 매주 정기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낸 것은 동아리 측에서는 현실적인 문제로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㉔은 동아리 대표의 교섭 범위를 벗어난 제안이다. 그래서 동아리 측에서는 2~3명씩 당번을 정해 노인 학교를 한 달에 두 번씩 찾아뵙고 도움을 드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양측이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최종 양보점 사이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 04 ㉔은 주민 측이 처음에 요구한 공연 일정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발화이다. ㉔은 주민 측이 처음에 요구한 노인 학교 연극 활동 지원 방안을 조정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안한 발화이다.

|오답 풀이| ① ㉔이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앞서 합의된 사항을 조정한 것은 아니다.

② ㉔은 새로운 양보안을 제시하는 발화이지만, 상대측이

협상의 결렬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③ ㉞는 상황을 고려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지 주어진 상황을 점검하는 발화로 보기 어렵다.

④ ㉞는 상대방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탐색하는 발화로 보기 어렵다.

05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은 없으며, 기사문에 차기 협상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지도 않다.

| 오답 풀이 | ① 주민 측의 소극장 대여와 동아리 측의 노인 학교 연극 활동 지원 등 협상에서 양측이 합의한 핵심 내용이 요약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② ‘협상이 지난 8월 12일 오후 5시에 다빛아파트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와 같이 협상이 진행된 시간과 장소가 기사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④ ‘동아리 측이 주민 공연 관람과 노인 학교 연극 활동을 지원하기로 약속함으로써 소극장 대여에 합의했다.’와 같이 협상에서 동아리 측이 주민 측에 제공하기로 한 이익 방안이 기사문에 제시되어 있다.

⑤ ‘동아리 측이 요청한 공연 전 연습 장소 제공은 주민 측의 사정에 따라 조정안이 채택되었다.’와 같이 동아리 측의 요청이 주민 측의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음이 기사문에 언급되어 있다.

06 창고 벽에 쓰여진 글씨들은 옛 모습을 복원하여 개조한 것이 아니라 예전 그대로의 모습이 남아 있는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삼례의 문화 예술촌은 일제 강점기에 양곡 수탈 기지로 쓰였다는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

② 글쓰기가 가 보리라 버트던 문화 예술촌을 가기 위해 삼례를 찾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삼례의 문화 예술촌은 원형 보전에 역점을 두고 설립했기 때문에 창고의 겉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다.

⑤ 삼례의 문화 예술촌은 예술촌으로 탄생하기 전 100년 가까이 창고로 사용되었다.

07 이 글은 기행문이므로 기행문의 작문 관습을 따라야 한다. 기행문은 여행에서 보고 들은 바를 솔직하고 실감나게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글을 쓸 때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진실하게 다루어야 하고 과장하거나 왜곡해서는 안된다.

③ 이 글의 목적이 보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④ 이 글은 글쓰이의 여정에 따라 글이 전개되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전개되므로 적절하지 않다.

⑤ 기행문은 객관적 사실(견문) 외에 감상이 들어가므로 적절하지 않다.

08 원래의 의미와 반대되는 말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은 반어법

인데, 이 글에 반어법은 사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순식간에 100년을 이동한 느낌이랄까?’, ‘이것저것 집어먹는 기분이랄까.’ 등의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고 있다.

② ‘봄바람처럼 스스해진 몸과 마음으로’에서 비유법을 활용해 자신의 행동을 묘사하고 있다.

③ ‘삼례 성당도 애당초 한 식구였던 듯 잘 어우러져 있다.’, ‘오래된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소통해서 친구가 된다.’ 등에서 의인법을 활용해서 주변과 잘 어우러진 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④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짙은 나무 향이 우르르 달려 나온다.’와 같은 표현에서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짙은 나무 향이 나는 목공소의 특색을 표현하고 있다.

09 문화 카페 밖에서 오래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남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였다. 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로 이어져 공존하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므로 당당하게 각자의 길을 걷고 있다는 생각과는 거리가 멀다.

10 글쓰이는 아날로그와 디지털, 마당 곳곳의 조형물, 과거의 아픈 역사와 오늘날의 문화 예술이 공존하는 삼례의 문화 예술촌을 보며 시간 위에 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로 이어져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다. 그래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신한 세상을 낯설지 않게 느끼고 있는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문화 예술촌’과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모두 활용하여 ㉠의 계기를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상
주어진 키워드 2개 중 일부만을 사용하여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중
주어진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 문장으로 서술한 경우	하

11 여행을 하며 보고 느낀 점은 과장이나 왜곡 없이 솔직하고 진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글쓰이는 생각, 느낌, 경험 등을 거짓없이 진실하게 써야 한다.

② 글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가져오지 말아야 하고, 가져온다면 동의를 구하고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④ 글을 쓸 때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는 표현을 써야 한다.

⑤ 여행지에서 보고 들은 내용에 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작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이다.

4 우리 언어생활의 변화와 발전

(1) 국어가 걸어온 길

확인 문제 01

본문 200~201쪽

01. ⑤ 02. ③ 03. ⑤ 04. ③

01 중세 국어에 사용되었던 ‘ㄹ, ㅂ’ 등의 음운이 시간이 흐르면 서 소멸된 것은 맞으나 해당 음운을 사용해 표기하였던 어휘들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 ‘말쭈’이라는 단어는 ‘말씀’으로, 즉 ‘ㄹ’이 ‘ㄴ’으로 대체되었을 뿐 어휘는 그대로 현대 국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중세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이어적기 방식을 사용했으나 현대 국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고 끊어적기 방식을 사용하는 등 표기 방식에 차이가 있다.

② ‘어리다(어리석다 → 나이가 적다)’와 같은 단어가 이에 해당한다.

③ ‘申屠國賢’으로 보아 중세 국어에서는 ‘예’가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쓰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과’를 쓴다.

④ 중세 국어에서는 ‘성조’, 즉 소리의 높낮이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주는 기능을 하였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사라졌다.

02 ㉠은 이어적기 표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은 ‘스몯디’의 ‘스몯-’이 ‘스몯-’으로 바뀌어 팔중성법에 따른 표기를 보여 준다.

② ‘ㅼ’은 단어의 첫머리에 자음이 둘 이상 오는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④ ㉡에 원순 모음화가 적용되면 ‘물 → 물’이 된다.

⑤ ㉢은 ‘ㅼ-+ -음(명사형 어미)+’으로 분석된다.

03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어린’으로, ‘불쌍히’에서 ‘어여쁘게’로 의미가 변화한 것은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의미의 축소나 확대는 의미의 이동과는 성격이 다른 변화에 해당한다.

04 ㉠은 ‘하늬+이’로 분석되며, ‘하늬’는 ㅎ 종성 체언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는 후대에 원순 모음화의 적용을 받는다.

② ㉢는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④ ㉣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시-)와 상대 높임 어미(-니이다)가 쓰인 말이다.

⑤ ㉤에 팔중성법이 적용되었다면 ‘늬고’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ㅎ’ 종성 체언

중세 국어에는 ‘ㅎ’을 종성으로 가진 명사가 존재했는데, 이를 ‘ㅎ’ 종성 체언이라 한다. 이러한 명사는 어떤 음운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졌다.

1.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놓이면 명사의 ‘ㅎ’이 사용되었다.

예 하늬+이 → 하늬히

2.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 놓이면 명사의 ‘ㅎ’과 조사의 ‘ㄱ, ㄷ’이 축약되었다. 예 하늬+과 → 하늬과

3. 명사가 단독으로 쓰이거나 관형격 조사 ‘ㅅ’ 앞에 놓이면 ‘ㅎ’이 탈락되었다. 예 하늬, 하늬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09~210쪽

01. ④ 02. ④ 03. ① 04. ① 05. ② 06. ㉡는 ‘스몯디’

에서 ‘사몯디’로 표기된 말임을 감안하면 팔중성법이 적용된 표기에 해당하고, ㉢는 ‘깊고’로 표기되지 않고 ‘깊고’로 표기되었으므로 팔중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표기이다. 07. ① 08. ③ 09. ⑤ 10. ③

11. ⑤ 12.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씹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01 ‘뭇돈자히’는 현대어로 ‘말을 탄 채’로 풀이된다.

| 오답 풀이 | ① ‘나라말쭈미’는 ‘나라의 말’로 풀이된다.

② ‘홍배’는 ‘할 바가’로 풀이된다.

③ ‘수비니겨’는 ‘쉽게 익혀’로 풀이된다.

⑤ ‘하늬히도뵈실쎈’은 ‘하늬이 도우시므로’로 풀이된다.

02 ‘ㅼㄹ미니라’에는 이어적기 방식이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뽕꺾’에서 ‘예’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② ‘스몯디’는 ‘스몯디’가 팔중성법의 적용을 받은 말이다.

③ ‘ㅼ들’의 ‘ㅼ’은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⑤ ‘뽕꺾’은 ‘ㅼ-+ -음+에’로 분석되는데, ‘-음’이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03 ㉠에서는 주격 조사로 ‘이’가 사용되었다. ㉠은 ‘나라말쭈+이’로 분석되는데, 자음으로 끝나는 명사 다음에는 주격 조사로 ‘이’가 사용된다.

| 오답 풀이 | ② ㉡은 ‘뽕꺾+이’로 분석되며 자음 뒤에서 주격 조사는 ‘이’이다.

③ ㉢은 ‘나+ㅣ’로 분석되므로 주격 조사는 ‘ㅣ’이다.

④ ㉣은 ‘뽕+영형태’이므로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⑤ ㉤은 ‘뽕리+영형태’이므로 주격 조사가 겹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04 ㉡의 ‘예’는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①의 ‘와’도 비교의 의미를 나타낸다.

| 오답 풀이 | ② 진행 방향을 나타낸다.

- ③ 함께 함을 나타낸다.
- ④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
- ⑤ 움직임의 경로를 나타낸다.

05 ‘마누라’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특정 부분으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놈’은 일반적인 사람에서 남자를 낮추어 이르는 말로, ‘말춤(말씀)’은 일반적인 말을 의미하다가 남의 말을 높이거나 자기의 말을 낮춰 이르는 말로 변화하였다. 이는 ‘마누라’의 의미 변화와 유사하다.

| 오답 풀이 | ‘하다’, ‘어리다’, ‘어엿보다’는 의미의 이동에 해당한다. (‘하다’는 소멸로 보는 견해도 있음.)

06 ㉠은 ‘스뭇디’가 팔중성법의 적용을 받아 ‘스뭇디’로 표기하였고, ㉡는 팔중성법에 의하면 ‘깁고’로 표기되어야 하지만, ‘깁고’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팔중성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팔중성법과 관련하여 ㉠과 ㉡의 중성 표기를 모두 바르게 설명한 경우	상
팔중성법과 관련하여 ㉠과 ㉡의 중성 표기 중 하나를 바르게 설명한 경우	중
㉠과 ㉡의 표기는 썼지만 팔중성법을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07 (가)의 ‘어린’의 ‘어리다(어리석다의 의미)’와 현대 국어의 ‘어리다(나이가 적다는 의미)’ 모두 품사는 형용사이다.

| 오답 풀이 | ② ‘빅성이(빅성+이)’의 주격 조사는 ‘이’이고, ‘내(나+ㅣ)’의 주격 조사는 ‘ㅣ’이다.

- ③ ‘:수·빅’의 처음절은 방점이 두 개(상성)이고 둘째 음절은 방점이 한 개(거성)이므로 성조가 서로 다르다.
- ④ ‘하놀히’는 ㅎ 중성 체언인 ‘하놀’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한 것이다.
- ⑤ ‘ㄷ리’의 ‘ㄷ’ (아래 아)는 오늘날에는 없는 모음이다.

08 ‘시리’는 ‘능히’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오답 풀이 | ① ‘스뭇디’는 ‘통하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② ‘전츠로’는 ‘까닭으로’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④ ‘빅’는 ‘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 ⑤ ‘ㄷ리’는 ‘사다리’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09 ‘니르고저’의 ‘니르다’는 훗날 두음 법칙의 적용을 받아 ‘이르다’가 되고, ‘믈’은 원순 모음화의 적용을 받아 ‘몰’이 된다.

| 오답 풀이 | ㉠과 ㉡ 모두 된소리되거나 구개음화나 유음화와 관련이 없다.

10 ㉢는 ‘놈+이’로 분석되고, ㉣는 ‘ㄷ리+영형태(형태가 드러나지 않음.)’로 분석된다.

11 ‘썩름’은 먼저 둘째 음절의 ‘ㄷ’가 ‘ㄱ’로 바뀌어 ‘썩름’이 되었다가 처음절의 ‘ㄷ’ ‘도’ ‘ㅌ’로 대체되면서 지금과 같은 ‘따름’으로 변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③ ‘ㅌ춤내’의 현대 국어 형태는 ‘마침내’이므로 둘째 음절에 놓인 ‘ㄷ’가 ‘ㄱ’로 바뀐 예로 볼 수 없다.

12 ㉠을 현대어로 풀이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씬에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가 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 전체를 현대어로 바르게 풀이한 경우	상
㉠ 중 절반 이상 바르게 풀이한 경우	중
㉠ 중 일부만 바르게 풀이한 경우	하

(2) 바르고 정확한 국어생활

확인 문제 01

본문 214~215쪽

01. ③ 02. ④ 03. ③ 04. 썩름 / ‘ㄱ’ 받침 뒤에서 ‘ㄷ’이 된소리가 나지만, 이는 언제나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예이므로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썩름’으로 표기한다.

01 ‘웃으니’를 발음하는 대로 적으면 ‘우스니’가 된다. ‘웃으니’는 어간의 형태 ‘웃-’을 고정하여 적는 ㉠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발음하는 대로 적는 표기 방식에 해당한다. ④, ⑤ 형태소 본래의 모양을 밝힌 표기 방식에 해당한다.

02 ㉠은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가 나지만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납작하다’로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⑤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소리 나는 대로 된소리를 표기하므로 ㉠ ‘몽땅’, ㉡ ‘움짤’, ㉢ ‘산뜻하다’로 적어야 한다.

③ ㉣ ‘ㄱ,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지만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는 경우이므로 ‘썩썩하다’로 적는다.

03 ③ ‘딸국질’은 ‘ㄹ’ 받침 뒤에서 특별한 까닭이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딸꼭질’로 적는다.

| 오답 풀이 | ① ‘듬뿍’은 ‘ㅁ’ 뒤에서 특별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듬뿍’으로 표기한다.

② ‘거꾸로’는 두 모음 사이에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거꾸로’로 적는다.

④, ⑤ ‘갑자기’와 ‘법석’은 ‘ㅂ’ 받침 뒤에 ‘ㅅ, ㅈ’이 연결되어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 04 [쌍뚝]은 ‘ㄱ’ 받침 뒤에서 연결되는 ‘ㄷ’은 언제나 된소리되기가 일어나는 음운 변동의 예이므로 된소리를 반영하지 않고 ‘쌍뚝’으로 표기한다.

|서술형 평가 기준|

표기와 표기 이유 모두 바르게 설명한 경우	상
표기와 표기 이유 중 하나를 바르게 설명한 경우	중
표기와 표기 이유 모두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216~217쪽

01. ① 02. ② 03. ③ 04. ④

- 01 한글 맞춤법 제7항에 의해, ‘무릇’은 ‘ㄷ’ 소리로 나는 받침이지만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으므로 ‘ㅅ’으로 적는다.

|오답 풀이| ②, ④, ⑤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어 관습대로 ‘ㅅ’으로 적는다.

③ ‘곧이’의 ‘곧-’은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ㄷ’으로 적을 뚜렷한 근거가 있으므로 ‘ㄷ’으로 적는다.

- 02 한글 맞춤법 제29항은 끝소리가 ‘ㄹ’인 말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남알’은 원래부터 ‘ㄷ’ 받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있어서 ‘ㄷ’으로 적으므로 제29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설달’은 ‘설+달’에서 비롯되었다.

③ ‘술가락’은 ‘술+가락’에서 비롯되었다.

④ ‘이튿날’은 ‘이틀+날’에서 비롯되었다.

⑤ ‘설부르다’는 ‘설+부르다’에서 비롯되었다.

- 03 한자음 ‘理髮(리발)’이 ‘이발’이 된 것은, 한자음 ‘리’가 단어의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이’로 적는다는 규정(한글 맞춤법 제11항)에 따른 것이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따라 한자음 ‘녀, 뇨, 뉴, 니’를 단어 첫머리에서 ‘여, 요, 유, 이’로 적는 두음 법칙과 관련된다.

- 04 ㉔의 ‘年度’는 명사로 쓰인 경우로, 단어의 첫머리에서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출생 연도’로 써야 한다.

|오답 풀이| ㉓, ㉔은 명사로 쓰인 경우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어 ‘연도’, ‘연’으로 쓴다.

㉒, ㉔은 의존 명사로 쓰인 경우로,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아 ‘년’, ‘년도’로 쓴다.

확인 문제 03

본문 218~219쪽

01. ② 02. ① 03. ④ 04. ④

- 01 ‘사라지다’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에 해당한다. ‘사라지다’는 ‘살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발음대로 표기한 것이다.

|오답 풀이| ① ‘돌아가다’는 ‘돌다’, ③ ‘엮어지다’는 ‘엮다’, ④ ‘틀어지다’는 ‘틀다’, ⑤ ‘홀어지다’는 ‘홀다’의 각각 의미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그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다.

- 02 ‘너머’의 품사는 명사인데, 동사 ‘넘다’의 어간 ‘넘-’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품사가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오답 풀이| ② ④는 어간 ‘넘-’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③ ⑤는 어간 ‘넘-’에 ‘-어’가 결합된 것이므로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한 말이다.

④ ⑥는 어간 ‘넘-’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⑤ ⑥는 어간 ‘넘-’에 어미 ‘-어야+--겠+--네’가 결합된 말이다.

- 03 ④는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로, 그 원형을 밝히어 ‘미다지’가 아니라 ‘미달이’로 표기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어간에 ‘-이’나 ‘-음/ㅁ’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③, ⑤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경우로,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 04 ‘아무튼’에서는 ‘ㅎ’이 받침으로 표기에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튼’은 ‘아뭇튼’에서 온 말이지만 부사로 굳어져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이다.

|오답 풀이| ①, ② ‘간편케’는 ‘간편하+--게’에서, ‘연구토록’은 ‘연구하+--도록’에서 ‘하’의 ‘ㅈ’가 줄고 거센소리로 된 경우이다.

③ ‘그렇지’의 어간은 ‘그렇-’인데,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져서 받침으로 적는다.

⑤ ‘거북지’는 ‘거북하+--지’에서 ‘하’가 아주 줄어든 경우이다.

확인 문제 04

본문 220~221쪽

01. ① 02. ② 03. 여기서부터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 이유: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므로, ‘부터는’과 ‘같이’는 앞말에 붙여 쓴다.

- 01 ①의 ‘뿐’은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 뜻의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이것뿐이다’로 붙여 써야 한다.

|오답 풀이| ②, ④ 용언의 관형사형 뒤에 나타나는 의존 명사이므로 ‘있을 뿐이다’, ‘할 뿐’처럼 띄어 쓴다.

- ③ 체언 뒤에 붙어서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이므로 ‘실력뿐이다’로 붙여 쓴다.
 ⑤ 장소를 나타내는 조사 ‘에서’와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조사 ‘뿐’, 보조사 ‘만’이 연속되므로 모두 붙여 쓴다.

02 ‘지워 버렸다’는 ‘본용언+아/어+보조 용언’의 구성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지워버렸다’로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되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길어서 띄어 쓴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꺼져 가다’는 ‘꺼지-(본용언)+아/어+가다(보조 용언)’의 형태이므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나 붙여 쓰는 것도 허용된다.

③ ‘읽어도 보았다’에서는 앞말 ‘읽어’에 조사 ‘도’가 연결되었으므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④ ‘떠내려가 버렸다’에서는 앞말 ‘떠내려가’가 합성어이며 본용언이 합성어인 경우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결합한 형태가 너무 길어질 수 있으므로 띄어 쓴다.

⑤ ‘올 듯도 하다’는 의존 명사 ‘듯’ 뒤에 조사 ‘도’가 붙은 경우로 반드시 띄어 써야 한다.

03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자립성이 없어 다른 말에 의존해서만 나타나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띄어쓰기를 둘 다 맞게 고치고, 그 이유를 바르게 설명한 경우	상
띄어쓰기를 둘 다 맞게 고쳤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중
띄어쓰기를 일부만 맞게 고치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5

본문 222~223쪽

01. ③ 02. ⑤ 03. ④ 04. ②

01 ③ ‘나른히’는 ‘이’나 ‘히’로 소리 나므로 ‘나른히’로 쓴다.

| 오답 풀이 | ①, ④ ‘히’로만 소리 나는 것은 ‘딱히’, ‘엄격히’처럼 ‘히’로 적는다.

② ‘이’로만 소리 나므로 ‘느긋이’로 쓴다.

⑤ ‘이’나 ‘히’로 소리 나므로 ‘쓸쓸히’로 쓴다.

02 부사의 끝음절이 ‘이’로만 소리 나므로 ‘툼툼히’가 아닌 ‘툼툼이’가 맞춤법에 맞는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④ ‘살살이’, ‘번번이’도 ‘이’로만 소리 나는 말이므로 ‘이’로 적는다. 대체로 겹쳐 쓰인 명사 뒤에서 ‘이’

로 쓰는 경향이 있다.

②, ③ ‘반듯이’, ‘깊숙이’도 ‘이’로만 소리 나는 말이므로 ‘이’로 적는다.

03 ‘생각하건대’의 준말은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생각건대’가 맞는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한글 맞춤법 제5항에서 ‘ㄱ, ㅂ’ 받침 뒤에 오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오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하므로 ‘깍두기’가 맞다.

② 한글 맞춤법 제7항에 의해 ‘ㄷ’ 소리로 나는 받침 중에서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는 것은 ‘ㅅ’으로 적어야 하므로 ‘뚫자리’가 맞는 표기이다.

③ 한글 맞춤법 제51항에 따라 ‘이’나 ‘히’로 소리 나므로 ‘꼼꼼히’로 적는다.

⑤ 한글 맞춤법 제10항에 따라 ‘녀, 뇨, 뉴, 니’를 포함한 음절이 단어의 첫머리에 올 때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생산 연도’로 표기한다.

04 한글 맞춤법 제5항에 의해 ‘ㄱ, ㅂ’ 받침 뒤에 오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지만,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거듭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된소리를 반영하여 표기한다. 따라서 ‘쌈쌈하다’가 맞는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법석’은 ‘ㅂ’ 받침 뒤에 오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③ ‘익숙하지 않다’의 준말로,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으므로 ‘익숙지 않다’가 맞는 표기이다.

④ ‘뿐’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⑤ ‘이’나 ‘히’로 소리 나므로 ‘소홀히’로 적는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30~232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⑤ 05. ‘살짝’과 ‘씩둑’은 모두 뒤의 음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살짝’은 ‘ㄹ’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나는 경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뽕시’는 ‘ㅂ’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언제나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06. ⑤ 07.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써야 하지만, ‘일 년 동안’, ‘2025년도’나 ㉠과 같은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은 명사로 쓰여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으로 표기한 경우로, ‘연 강수량’, ‘출생 연도’ 등의 예가 있다. 08. ② 09. ⑤ 10. ③ 11. ④ 12. 어간 ‘묻-’과 접미사 ‘-엄’의 결합을 ‘무담’으로 적은 것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음주의에 따른 표기이다. ‘무담’은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하는 접미사가 결합하여 품사가 바뀐 말이므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묻엄’으로 적지 않는다. 13. ③ 14. ③ 15. ③

01 ㄱ. ‘돋자리’와 ‘뚫자리’는 받침으로 ‘ㄷ’을 쓸 것인지, ‘ㅅ’을

쓸 것인지를 찾아보아야 하므로, 제3장 소리에 관한 것-제3절 ‘ㄷ’ 소리 받침(ㄷ) 항목을 찾아보아야 한다.

ㄴ, ‘미달이’와 ‘미다지’는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말의 어간을 어떻게 적을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하므로,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ㄷ) 항목을 찾아보아야 한다.

02 ①의 ‘남녀’는 소리대로 적은 경우이고, ‘여자’는 두음 법칙에 의해 단어의 첫머리에 오는 ‘녀’가 ‘여’로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경우이다.

03 ㉠은 어간 ‘늑-’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② ㉠은 본래 어간은 ‘아름답-’이고,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대로 적어 발음과 표기가 일치한다.
 ③, ⑤ ㉠은 ‘어법에 맞도록’ 적은 표기로, 표의주의에 따라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04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언제나 된소리로 소리 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즉, 발음은 된소리로 나지만 그것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된소리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표기하지 않는다.

② ‘잔뜩, 훨씬’처럼 ‘ㄴ, ㄹ, ㅁ, ㅇ’ 받침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된소리로 적는다.

③ ‘소쩍새, 산뜻하다’는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된소리로 적는다.

④ ‘ㄱ, ㅂ’ 받침 뒤에 연결되는 된소리가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는다.

05 ‘살짝’과 ‘씩둑’은 모두 뒤의 음절이 된소리로 발음되는 공통점이 있으나, ‘살짝’은 ‘ㄹ’ 뒤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된소리가 되는 경우이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고, ‘뭉시’는 ‘ㅂ’ 뒤에서 된소리되기가 언제나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발음과 달리 된소리를 표기에 반영하지 않는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발음상의 공통점과 표기상의 차이점을 바르게 설명한 경우	상
발음상의 공통점이나 표기상의 차이점 중 일부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중
발음상의 공통점과 표기상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06 ‘반짋고리’는 ‘바느질고리’에서 온 말로, 끝소리가 ‘ㄹ’인 말

과 판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는 규정(제29항)에 따라 ‘반짋고리’로 적는다.

| 오답 풀이 | ‘무릎, 웃어른, 덧저고리, 돛자리’는 모두 음절 종성에서 ‘ㄷ’으로 소리 나지만 ‘ㄷ’으로 적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ㅅ’으로 적는 표기에 해당한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받침을 ‘ㄷ’으로 적는 경우

1. ‘곧장, 날거리’ 등과 같이 복합어의 앞 요소에 ‘ㄷ’ 받침이 원래부터 있는 경우
2. ‘겉잡다, 들보다’와 같이 준말로 만들어지면서 ‘ㄷ’ 받침을 갖게 된 경우
3. ‘반짋고리, 사흘날, 손가락’ 등과 같이 ‘ㄹ’ 소리와 연관되어 ‘ㄷ’으로 소리 나는 경우

07 ㉠은 한자음 ‘녀, 뇨, 뉴, 니’가 단어 첫머리에 올 적에는 두음 법칙에 따라 ‘여, 요, 유, 이’로 써야 하지만, 의존 명사에는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그 예로 ‘일 년 동안’ ‘2025년도’ 등이 있다. ㉠은 명사로 쓰인 경우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연’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예로 ‘연 강수량’, ‘출생 연도’ 등이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과 ㉡의 이유에 대해 각각의 예를 들어 적절히 서술한 경우	상
㉠과 ㉡의 이유는 적절하게 설명하였으나 예시의 일부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중
㉠과 ㉡의 이유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했거나 예시의 일부를 잘못 제시한 경우	하

08 ‘생각하건대’는 ‘하’가 통째로 줄어드는 경우로, [붙임 2]에 따라 ‘생각건대’로 써야 한다.

09 ⑤의 ‘사라지다’는 ‘살다’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④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원형을 밝혀 ‘틀어졌다’, ‘돌아가서’, ‘늘어났다’로 표기해야 한다.

③ 본뜻에서 멀어진 경우에는 원형을 밝히지 않고 ‘드러냈다’로 적는다.

10 ㉢에서 ‘드러나다’를 ‘들어나다’로 적지 않는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로, 표음주의에 의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두 용언이 어울려 한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② 표의주의에 따라 적으면 의미를 나타내는 어간의 형태가 고정되어 단어의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④, ⑤ 두 용언이 어울려 한 용언이 될 때, 앞말의 본뜻이 유

지되지 않는 것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 11 ‘거름’은 어간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으로, 어간의 뜻과 떨어진 ㉠의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먹이’는 어간 ‘먹-’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많이’는 어간 ‘많-’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③ ‘노름’은 어간 ‘놀-’에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인데 어간의 뜻과 떨어져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⑤ ‘너머’는 어간 ‘넘-’에 ‘-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으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목거리와 목걸이, 노름과 놀음

‘목거리’는 ‘목이 붓고 아픈 병’을, ‘목걸이’는 ‘목에 거는 물건, 또는 여자들이 목에 거는 장식품’을 이른다. ‘목걸이’에서는 ‘걸다’의 뜻이 유지되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노름(도박)’도 어원적인 형태는 ‘놀-’에 ‘-음’이 붙어서 된 것이지만, 그 어간(‘놀-’)의 본뜻에서 멀어졌으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반면 ‘놀음’은 ‘놀다’의 뜻이 유지되므로 그 형태를 밝히어 적는다.

- 12 ‘묻-’과 ‘-음’의 결합을 ‘무덤’으로 적은 것은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이다. ‘무덤’은 어간 ‘묻-’에 ‘-이’나 ‘-음’ 이외의 접미사 ‘-음’이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므로 이 경우는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무덤’의 표기 원리를 설명하고 그 이유를 적절히 설명한 경우	상
‘무덤’의 표기 원리와 그 이유 중 하나에 대해 적절히 설명한 경우	중
‘무덤’의 표기 원리와 그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 13 ③에서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에 띄어 쓰고, ‘조차’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오답 풀이 | ① ‘아는만큼’의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② ‘잊은지’의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이므로 앞말과 띄어 쓴다.

④ ‘인지를’은 ‘서술격 조사(이-)+어미(-ㄴ지)+조사(를)’의 결합이므로 모두 앞말에 붙여 쓴다.

⑤ ‘부터는’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 14 ③에서 ‘십 년만에’의 ‘만’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쓰고, ‘일 년만’의 ‘만’은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15 ‘먹어 버렸다’는 ‘먹-(본용언)+-어/-아+버렸다(보조 용언)’의 구조이므로 띄어 씀이 원칙이나 붙여 씀도 허용된다.

| 오답 풀이 | ① 중간에 의존 명사 ‘뭇’ 뒤에 조사 ‘도’가 들어간 경우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앞말 ‘쫓아내’는 ‘쫓다’와 ‘내다’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므로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④ 앞말 ‘들어’ 뒤에 조사 ‘는’이 붙은 경우로 띄어 써야 한다.

⑤ 앞말 ‘매달아’는 ‘매다’와 ‘달다’가 결합한 합성 용언이므로 보조 용언은 띄어 써야 한다.

(3) 매체와 함께하는 생활

확인 문제 01

본문 236~237쪽

01. ④ 02. ⑤ 03. ⑤ 04. 영상 매체는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01 이 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매체가 어떻게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매체 간의 차이점이 드러나 있으나 매체별 이용자들의 특성을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② 매체의 유형별 특성이 드러나 있지만, 매체의 발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분석하고 있지는 않다.

③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로 사용된 매체가 제시되어 있지만, 매체에 대한 당대의 평가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⑤ 매체의 변화가 이전의 매체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지만, 매체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들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 02 구술 매체의 경우 화자와 청자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과 맥락을 공유해야 하지만, 문자 매체는 탈상황적, 탈맥락적 소통이 가능하다.

| 오답 풀이 | ① 문자 매체의 발달로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하는 소통 방식이 더욱 발달하고, 이로써 지식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었다.

② 구술 매체는 다른 시간대와 다른 공간의 사람과는 소통이 어려운 한계가 있다.

③ 인쇄술의 발달로 책이 대량으로 유통되면서 쓰기와 읽기 중심의 소통 방식이 더욱 발달하였다.

④ 영상 매체는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대중 매체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 03 글 중심의 문자 매체는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에 따라 내용

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시청각 이미지 중심의 영상 매체는 보편적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보다 ㉡이 다른 시간대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② 정보 전달자와 수용자의 직접 대면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다.

③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대량의 정보를 수용하는 대중 매체의 특성을 지닌 것은 ㉡이다.

④ ㉡은 시청각 이미지를 통해 ㉠보다 더 쉽게 수용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 04** 영상 매체는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어서 다수가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에 대해 소통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매우 커졌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영상 매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형식 요건에 맞게 적절하게 쓴 경우	상
내용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형식 요건이 미흡한 경우	중
관련이 있는 내용이지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2

본문 238~239쪽

01. ③ 02. ② 03. ① 04. 상호 작용성

- 01** 이 글은 복합양식성, 하이퍼텍스트, 상호 작용성 등 디지털 매체의 특징과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1인 미디어 방송 등 디지털 매체의 다양화된 소통 방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2** 대중 매체는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는 데 반해, 디지털 매체는 쌍방향으로의 소통이 가능하므로 정보 전달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

- 03** 1인 미디어 방송의 확대로 기존 영상 매체 환경에 비해 폭넓은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거나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을 뿐, 이것이 정보의 소비자보다 생산자가 더 많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 04** ㉠은 댓글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가 쌍방향으로 소통한다는 것인데, 이는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디지털 매체의 상호 작용성과 관련이 있다. 디지털 매체의 이용자들은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해석함으로써 문화를 생산하고 창조하는 주체가 되고 있는 것이다.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47~248쪽

01. ③ 02. ③ 03. ④ 04. (ㄱ)에 사용된 매체는 구술 매체로 말하기를 통해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므로 시공간적 한계를 지니고 있는 반면에, (ㄴ)에 사용된 매체는 문자 매체로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하며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05. ③ 06. ⑤

- 01** 이 글에서는 구술 매체, 문자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체로의 변화와 매체별 특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나타난 소통 방식과 소통 문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02** 디지털 매체인 1인 미디어 방송은 기존 영상 매체에 비해 이용자가 정보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하는 것이 더 수월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댓글과 실시간 대화를 통해 자유로운 의사 소통과 정보의 공유가 쌍방향으로 가능하다.

| 오답 풀이 | ① 문자 매체의 등장으로 쓰기와 읽기 중심의 소통 문화가 형성되었다.

② 문자 매체를 사용하면서 구술 매체의 시공간적 한계를 초월할 수 있게 되었다.

④ 디지털 매체는 문자 외에 음성, 그림, 동영상 등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므로 복합양식의 글이나 자료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새로운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⑤ 대중 매체의 특성이 있는 영상 매체는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만, 디지털 매체의 상호 작용성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쌍방향으로 소통한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상호 작용성

디지털 매체의 상호 작용성은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매체의 이용자들은 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를 수용하면서, 그에 관한 새로운 정보를 능동적으로 생산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성한 정보와 관련해 다른 이용자와 소통하는 양상도 보여 준다.

- 03** ㉠은 정보가 생산자로부터 수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지만, ㉡은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역할을 겸할 수 있어서 정보를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이용자가 지식과 정보의 수용자이면서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다.

② 하이퍼텍스트가 활용되는 것은 ㉠이 아니라 ㉡이다.

③ ㉠은 다수의 수용자가 동시에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⑤ ㉠은 시청각 이미지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해 정보에 대한 수용자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 04** (ㄱ)에는 구술 매체, (ㄴ)에는 문자 매체가 사용되었다. 구술 매체는 말하기를 통해 상황과 맥락을 공유하므로 시공간적

한계가 있는 반면, 문자 매체는 쓰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구술 매체의 시공간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ㄱ), (ㄴ)의 매체와 매체의 특징을 조건에 맞게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ㄱ), (ㄴ)의 매체와 매체의 특징을 맞게 서술하였으나 형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중
형식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그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하

- 05 이 매체 자료는 인터넷 뉴스 기사이다. 이 글은 전문에서 주요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한 후에 그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문제가 되는 상황과 관련해 구체적인 현황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상의 유형을 원인별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다.

②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④ 글쓴이의 주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입증하고 있는 글이 아니다.

⑤ 특정 사실과 관련된 문제점은 제시되어 있지만 해결책을 순차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 06 제시된 매체 자료는 문자 중심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시청각 자료를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52~257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③ 05. ② 06. ① 07. ⑤
08. ④ 09. ⑤ 10. 상대 높임법은 청자에 대한 높임법으로, ㉔에서는 ‘-이-’라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반면, ㉔의 현대어인 ‘건너십니다’에서는 ‘-버니다’라는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 11. ① 12. ⑤ 13. ④ 14. ④ 15. ③
16. ① 17. ② 18. ② 19. ⑤ 20. ③ 21. 이제부터는 그런 것쯤은 참을 수 있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22. ③ 23. ⑤
24. ④ 25. ④ 26. 전달하려는 의미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강조하기 위해서 음절을 늘려서 표기하고 있다.

- 01 ‘하니라’의 ‘하다’는 중세 국어에서는 ‘많다’의 의미로 쓰였으나 현대 국어에서 ‘어떤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의 의미로 바뀌었다.

| 오답 풀이 | ① ‘쁘들(쁘+을)’, ‘쁘큼미니라(쁘큼+이니라)’는 이어적기에 따른 표기에 해당한다.

③ ‘스물’과 ‘물’은 후대에 원순 모음화의 적용을 받아 각각 ‘스물’과 ‘물’로 변화한다.

④ ‘쑤메’는 ‘쑤-+--음+에’로 분석되며, 명사형 어미로 ‘-음’이 쓰였음을 알 수 있다.

⑤ ‘물튼’에는 현대 국어에는 쓰이지 않는 모음 ‘ㆍ’가 포함

되어 있다.

- 02 ‘놈’은 일반적인 사람을 의미하다가 현대어로 오면서 ‘남자’ 또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다.

| 오답 풀이 | ① ‘어린’은 오늘날의 ‘나이가 적은’과 달리 ‘어리석은’을 의미한다.

② ‘쁘들’의 ‘쁘’은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④ ‘하눌히’는 ‘하늬(ㅎ 종성 체언)’과 주격 조사 ‘이’의 결합형이다.

⑤ ‘느리시니이다’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와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가 사용되었다.

- 03 ‘하눌히’는 ‘하늬+이’에서 체언 끝의 ‘ㅎ’이 탈락하여 ‘하늘’이 된 것이다. ‘ㅎ’이 ‘ㅇ’으로 바뀌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니르고저’의 첫 음절 ‘니’에서 ‘ㄴ’이 탈락하여 ‘이르고자’로 된 것이다.

② ‘퍼디’는 ‘ㅣ’ 모음 앞에서 ‘ㄷ’이 ‘ㅈ’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로 ‘퍼디’가 ‘퍼지’로 된 것이다.

③ ‘스물여덟’의 둘째 음절 ‘물’에서 ‘그’가 ‘구’로 바뀌어 ‘스물여덟’이 ‘스물여덟’으로 된 것이다.

⑤ ‘도복실씩’은 ‘똥-+--으시-+ㅅ씩’에서 어간 ‘똥-’이 ‘도우-’로 변한 것이다.

- 04 ㉔은 ‘나랏말춤’에 주격 조사가 결합된 경우인데, 자음 뒤이므로 ‘이’가 사용된 것이다.

㉔은 ‘바’에 주격 조사가 결합된 경우인데, ‘ㅣ’나 반모음 ‘ㅍ’ 이외의 모음 뒤에서는 주격 조사 ‘ㅣ’가 사용된다.

- 05 ‘스똥디’는 ‘스똥-’의 ‘ㅈ’이 ‘ㅅ’으로 바뀌어 표기되어 팔중성법이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깊고’에서는 ‘깁고’로 표기되지 않았으므로 팔중성법이 적용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나랏말춤’은 ‘나랏말춤+이’, ‘하눌히’는 ‘하늬+이’로 분석되며, 둘 다 ‘이’가 주격 조사로 사용되었다.

③ ‘퍼디’는 후대에 구개음화의 적용을 받아 ‘퍼지’, ‘물’은 후대에 원순 모음화의 적용을 받아 ‘물’이 된다.

④ ‘내’는 ‘나+ㅣ’, ‘뵈’는 ‘뵈+영형태’로 분석되며, 각각 ‘ㅣ’와 영형태가 주격 조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⑤ ‘뻔한리’에서 ‘ㅎ’, ‘느리시니이다’에서 ‘ㆍ’와 ‘ㅇ’이 소실 자음자와 모음자에 해당한다.

- 06 ‘똥귀’는 현대어로는 ‘중국어’로 풀이할 수 있다. ‘에’가 비교의 조사로 사용되었다.

| 오답 풀이 | ② ‘이셔도(이시-+--어도)’는 ‘있어도’라는 의미이다.

- ③ ‘쁘들(쁘+을)’은 ‘뜻을’이라고 풀이할 수 있다.
- ④ ‘숨ㅎ실씩(숨ㅎ-+-시-+-리씩)’는 ‘명하시므로’로 풀이된다.
- ⑤ ‘자히’는 ‘채’로 풀이할 수 있다.

07 ‘사름’은 의미가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의미의 변화를 겪었다고 볼 수 없다.

- | 오답 풀이 |** ① ‘말쌈’은 일반적인 말에서 남의 말을 높이거나 자기의 말을 낮추는 말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다.
- ② ‘어린’은 ‘어리석은’에서 ‘나이가 어린’으로 의미 이동이 나타난 말이다.
- ③ ‘놈’은 ‘일반적인 사람’의 의미에서 남자나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비칭으로 의미 영역이 축소되었다.
- ④ ‘어엿비’는 ‘불쌍하게’에서 ‘예쁘게’로 의미 이동이 나타났다.

08 ‘제’는 ‘저+ㅣ(관형격 조사)’이므로 주격 조사 ‘이’나 ‘ㅣ’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 | 오답 풀이 |** ①, ② 주격 조사 ‘이’가 포함되어 있다.
- ③, ⑤ 주격 조사 ‘ㅣ’가 포함되어 있다.

09 ‘뿌메’는 ‘숨에, 사용함에’의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 | 오답 풀이 |** ① ‘뿌메’는 ‘쁘-+-음+에>쌔에’에서 앞 음절의 끝소리를 뒤 음절의 첫소리로 표기한 이어적기이다.
- ② ‘쁘-+-음+에’의 연결에서 음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표기는 모음 조화에 따른 것이다.
- ③ ‘뿌메’는 ‘쁘-+-음+에’의 결합형인데, 이때 ‘-음’은 명사형 어미에 해당한다.
- ④ ‘ㅁ’은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10 중세 국어에서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나 ‘-잇-’을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하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예를 들어 ‘-버니다’와 같은 종결 어미를 통해 상대 높임을 실현한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과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 모두에 대해 적절히 설명한 경우	상
중세 국어의 상대 높임과 현대 국어의 상대 높임 중 하나만 적절히 설명한 경우	중
상대 높임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한 경우	하

11 ‘스몯디’의 ‘츠’이 ‘스몯디’의 ‘ㅅ’으로 바뀐 것은 팔중성법에 따른 것이고, ‘깊고’와 ‘높고’에서 받침을 ‘ㅂ’으로 표기하지 않은 것은 팔중성법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12 ‘쵸릭미니라’의 ‘쵸’는 어두 자음군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④ 어두 자음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13 ‘하늘히’는 ‘하늘+이’로 분석되는데, ‘ㅎ’ 종성 체언과 주격 조사의 결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②, ③, ⑤ ‘ㅎ’을 포함하고는 있으나 이것은 ‘ㅎ’ 종성 체언의 ‘ㅎ’이 아니다.

14 한글 맞춤법에서 각 단어는 띄어 쓰기를 원칙으로 하지만,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은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이 아니라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표기이다.

| 오답 풀이 | ①, ④ ㉡, ㉢은 표의주의에 따라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은 것이다.

②, ⑤ ㉣, ㉤은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다.

16 ㉠은 ‘ㅂ’ 받침 뒤에 오는 된소리로,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않으므로, ‘덥석’으로 표기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② ‘국밥’은 ‘ㄱ’ 받침 뒤에 오는 된소리로, 된소리로 적지 않는다.

③, ⑤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이므로 된소리로 적어 ‘우뚝’, ‘이따금’으로 적는다.

④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로, ‘몽땅’으로 적는다.

17 (ㄱ)과 같이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표기하는 것이 (ㄴ)과 같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표기에 비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쉽다.

| 오답 풀이 | ①, ③ (ㄱ)과 (ㄴ)은 표의주의에 따라 어간의 형태가 고정된 표기이다.

④ (ㄷ)은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표기이다.

⑤ (ㄷ)은 앞말의 본뜻이 유지되어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다.

18 ㉣은 표음주의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 예에 해당한다.

| 오답 풀이 | ① ‘걸음, 먹이, 믿음’은 어간에 ‘-이’와 ‘-음’이 붙어 명사로 된 것이다.

③ ‘놀음’은 ‘놀-’의 의미가 유지되어 원형을 밝히어 적은 것이고, ‘노름’은 어간의 뜻과 멀어져서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은 것이다.

④ ‘무덤’과 ‘주검’ 모두 접미사 ‘-엄’이 결합하였다.

⑤ ‘마개’는 어간 ‘막-’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 ‘-애’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이다.

- 19 ‘떠난지가’에서 ‘지’는 의존 명사이므로 ‘떠난 지가’로 띄어 써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떡을 만큼’에서 ‘만큼’은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②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써야 한다.

③ ‘너뿐만’에서 ‘뿐’과 ‘만’은 조사이므로 붙여 써야 한다.

④ ‘나대로’에서 ‘대로’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써야 한다.

- 20 ‘가꾸다’는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로,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아니므로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색시’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므로 ㉡에 적절하다. ‘똑똑하다’는 ‘ㄱ, ㅂ’ 받침 뒤에서 된소리로 발음되면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므로 ㉢에 적절하다.

| 오답 풀이 | ① ‘으뜸’과 ‘어떠하다’는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② ‘늠름하다’는 된소리와 관련이 없다.

④ ‘거꾸로’는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⑤ ‘갑자기’는 ㉡에, ‘깨끗하다’는 ㉢에 들어가기에 적절하다.

- 21 ‘부터’는 조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쓰고, ‘쫘’은 접미사이므로 앞말에 붙여 쓴다. ‘참을수있는’에서 ‘수’는 의존 명사이므로 띄어 쓴다.

- 22 (다)는 문자 매체 이후 영상 매체가 등장하면서 이전과 달라진 소통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영상 매체의 특성이 달라짐에 따라 소통 문화가 달라진 양상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구술 매체가 직접 대면하여 상황을 공유하는 말하기의 특성상 시공간적 제약이 있고, 그로 인해 지식과 정보의 기록, 보존, 유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구술 매체와 문자 매체의 대비를 통해 문자 매체가 구술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복합양식성, 하이퍼텍스트, 상호 작용성의 특성을 제시하고, 그에 관한 개념을 병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인터넷,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1인 미디어 방송 등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매체의 소통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여 준다.

- 23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는 인맥 확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이는 디지털 매체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맺는 소통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나

타낸다.

| 오답 풀이 | ① 구술 매체는 지식의 기록, 보존, 유통에 한계가 있다.

② 이용자에게 정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매체이다.

③ 쓰기과 읽기 중심의 소통 문화를 형성한 것은 문자 매체이다.

④ 시청각 이미지 중심으로 수용자가 보편적으로 내용을 쉽게 이해하는 것은 영상 매체이다.

- 24 제시된 매체 자료는 디지털 매체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사례이다. 그런데 정보 생산자가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시에 일반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대중 매체인 영상 매체의 특징이다.

- 25 (나)의 매체는 음성, 문자, 동영상 등이 혼합되어 복합양식으로 나타나므로 정보 수용자는 읽기 중심이 아니라 복합양식 자료의 새로운 소통 방식으로 수용해야 한다.

| 오답 풀이 | ① (가)는 글자 입력에 드는 시간이나 노력을 줄이려고 ‘ㅎㅎㅎ’처럼 자음만을 사용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② (가)는 하이퍼링크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 참여자들과 자료 영상을 공유하고 있다.

③ (나)는 해요체를 사용하여 시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⑤ (나)는 시청자가 실시간으로 반응하거나 질문한 것을 참고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 26 제시된 언어 사례들은 전달하려는 의미를 더 생생하게 표현하거나 강조하려는 의도로 말의 음절을 늘여서 표기하고 있다. 그 외에 음성 상징어를 쓰거나 그림 글자를 쓰는 경우도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언어 사용 사례의 의도와 현상을 모두 적절하게 적은 경우	상
언어 사용 사례의 의도와 현상 중 한 가지만 적은 경우	중
언어 사용 사례의 의도와 현상을 명확하게 적지 못한 경우	하

5

디지털 시대, 우리의 생활

(1)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매체 비평

확인 문제 01

본문 264~265쪽

01. ① 02. ③ 03. ④ 04. 「정년이」는 웹툰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며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한다.

01 이 글에서는 「정년이」가 웹툰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한계를 극복하며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한다고 평가한 뒤, 소리를 표현하는 방법, 즉 작품의 세부적인 특성을 근거로 어떻게 한계를 극복하는지 제시함으로써 그 평가를 뒷받침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② 소리를 직접 전하는 데 웹툰이 한계가 있음을 제시한 후, 그 한계를 「정년이」가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제시하고 있다.

③ 이 글을 통해 「정년이」의 특징을 알 수 있으나, 타 작품과 「정년이」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작품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④ 이 글을 통해 웹툰이 지닌 특성을 알 수 있으나 갈래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은 없다.

⑤ 작품에 대한 통념의 문제점이나 통념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다.

02 웹툰은 소리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웹툰에서 가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살려 배경 음악을 삽입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작품과 관련 있는 음악이 작품에서 재생되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록 밴드와 관현악단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은 익숙한 장르이기 때문에 독자들이 자연스럽게 소리를 연상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② 「정년이」는 시작과 동시에 소리를 온전히 표현하기 어려운 웹툰의 태생적 한계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였다.

④ 여성 국극은 전통 음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와 유사하지만, 판소리는 한 사람이 노래로 무대 전체를 이끄는 반면 여성 국극은 여러 사람이 노래, 춤, 연기를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⑤ 웹툰의 '무한함'은 상상력, 장르, 소재 등의 한계가 없어 기존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참신한 시도들을 해 왔음을 나타낸다.

03 국극은 여러 사람이 노래, 춤, 연기를 함께하며 조화를 이루

어야 한다. 「정년이」는 낮은 소리를 인물의 다채로운 동작, 역동적인 글, 대사의 서체, 기호 등의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결합하여 한 편의 국극처럼 형상화하고 있다.

04 이 글은 웹툰 작품인 「정년이」를 비평하고 있다. 글쓴이는 「정년이」가 웹툰만이 구현할 수 있는 방식을 통해 웹툰의 한계를 극복하며 웹툰의 무한함을 증명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확인 문제 02

본문 266~267쪽

01. ① 02. ① 03. ⑤ 04. 주란은 주인공의 친구 정도로 인식되다가 「자명고」 공연을 올리면서 강렬한 빛을 발산하여, 조연에게도 강한 힘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01 이 글은 표현과 내용의 측면에서 「정년이」의 특성을 분석하고 있다. 표현 면에서 장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고, 내용 면에서 서사의 입체적인 전개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⑤ 등장인물들의 성격을 소개하고 있으나, 유사성과 차이점으로 등장인물들을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이것만은 알고 가기 작품의 비평 요소

작품을 비평할 때 비평 요소는 크게 형식적 측면과 내용적 측면으로 나뉜다. 형식 면에서는 표현법, 서술상 특징, 인물 형상화 방식 등에 대해, 내용 면에서는 관점과 의도, 서사 전개 양상, 인물의 성격, 주제 의식 등에 관한 것으로 이루어진다.

02 무대는 현실과 분리된 별도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열린 공간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인물 간의 경쟁을 초래하는 것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닫힌 공간의 특성이다.

| 오답 풀이 | ② 「정년이」에서는 클로즈업과 오버랩 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③ 「정년이」는 공연이 시작되면 전체 무대를 한 화면으로 보여 주고, 그다음에는 군무 추는 장면 등으로 무대 분위기를 여러 컷으로 전한다.

④ 「정년이」에서 영서는 정년을 견제만 하는 데서 탈피해 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자 한다. 이들의 경쟁은 자신의 길을 더 넓혀 가는 것이다.

⑤ 「정년이」에서 작가는 도생을 통해 웹툰 독자에게 무대의 상황을 해석해 주고, 국극이란 낯선 장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03 ①은 정년이라는 인물이 큰 물결로 중심을 잡으면서도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해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서사를 전개한다는 의미이다.

- 04** 주란은 처음에는 주인공의 친구 정도로 인식되지만 「자명고」의 오디션 결과 비중이 큰 ‘구슬아기’ 역을 맡게 되고, 공연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한다. 이는 조연처럼 보였던 인물이 강한 힘과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조연으로서의 역할에서 반전이 있다는 내용을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반전이 있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중
조연으로서의 역할만 서술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268~269쪽

01. ④ 02. ④ 03. 정년의 ‘균줄 1’의 연기에 감화되어 성별 역할에 대해 지녔던 편견을 더 이상 갖지 않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 01** 영서는 클래식 성악만이 고급문화라는 어머니의 편견 때문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는다. 그러나 자신의 실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당당히 인정받고자 한다. 영서가 예술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졌던 것이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정년은 여성이 남성 연기를 하는 것을 처음 봤을 때 성별을 구별할 수 없는 연기력에 깜짝 놀란다.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편견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인물들이 편견을 깨고 성장할 때마다 그 결과물이 곧 무대 위에서 연기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③ 인물들의 성장이 무대 위에서 연기로 표현되고, 이를 바라보는 관객들도 감화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⑤ 도영은 양반 가문 출신으로 기생으로 일하며 국극을 시작했던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 02** ㉠은 정년을 향한 질문인데, 이를 여러 한계를 극복하는 작품 전체에 관한 질문으로 확장하고 있다. 소리를 그려 내고, 여성 국극을 소재로 삼은 이유를 묻는 질문으로 의미가 확장되고, 그에 대한 답으로 한계를 넘어서기 위한 열망 때문이라고 제시함으로써 작품의 의의를 부각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을 통해 주인공의 성장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물이 서사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지 않다.
② ㉡은 인물 간의 관계가 아니라 주인공의 내적인 성장에 관한 질문이다.
③ 인물의 갈등 관계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⑤ ㉢과 관련하여 정년의 성격에 대한 분석을 구체화하지는 않는다.

- 03** 할아버지는 여성이 남성을 연기한다는 점에 눈살을 찌푸린다. 그런데 정년의 ‘균줄 1’ 연기를 보고 감화되어 눈물을 쏟

는다. 이는 성별 역할에 대해 지녔던 편견을 극복했음을 보여 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조건을 모든 충족하여 인물의 변화와 변화의 계기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다른 조건을 충족하였으나 변화의 계기를 언급하지 못한 경우	중
서술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76~278쪽

01. ① 02. 노래, 춤, 연기 등이 어우러지는 국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며 웹툰의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03. ③ 04. ② 05. ① 06. ③ 07. ②

- 01** 이 글은 「정년이」에서 낯선 소리를 형상화한 방식과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한 방식 등 형식적 요소에 주목하여 작품의 특징을 평가하고 있다.

- 02** 「정년이」에서 오버랩 효과를 주는 것은 국극단의 공연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여 웹툰의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의 효과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의 효과와 글쓴이의 평가에 대해 한 가지만 맞게 서술한 경우	중
서술한 내용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하

- 03** 이 글에서는 소리를 표현하기 힘든 웹툰의 한계를 제시하고, 「정년이」가 인물의 다채로운 동작과 역동적인 앵글을 사용하여 소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 웹툰에서 가끔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살려 배경 음악을 삽입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② (나)에서 독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낯선 소리는 독자들이 떠올리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④ (라)에서 웹툰은 평면에 구현되는 시각 매체라 장면을 입체감 있게 표현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④ 이 글에서 입체감 있는 공연을 표현하는 데 웹툰 외에 다른 매체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다.

- 04** (다)는 독자들에게 낯선 여성 국극의 소리를 「정년이」에서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했는지를 밝히고 있다. 구체적 형상이 없는 추상적 요소인 소리의 표현 방식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보기>에서는 색과 선, 명암 등을 활용하여

인물, 하늘, 건물 등의 구체적 형상을 표현한 방식을 중심으로 비평하고 있다.

05 「정년이」에서는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이 함께 넘실거리는 모습을 통해 역동적이고 찬란한 물결의 합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무대가 정년의 것만이 아님을 반복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정년이 무대의 주인공임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6 이 글에서는 ㉔가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한 서사의 입체적 전개를 통해 닫힌 공간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고 하였다. 정년과 주변 인물들의 경쟁과 갈등을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전개되는 서사는 닫힌 공간의 무대에서의 서사적 특징이다.

| 오답 풀이 | ① 무대의 닫힌 공간에서는 인물 간의 경쟁이 초래되고 그로 인해 서사가 단선적으로 전개될 수 있는데, 「정년이」는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하여 서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극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② 도영, 영서, 주란 등 주변 인물들의 개성적인 면모와 반전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서사 전개의 방식을 보여 준다.
 ④ 시대와 사회가 가진 성별, 신분, 예술 등에 대한 편견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인물들이 편견을 깨고 성장한 결과물이 무대 위에서 연기로 표현되고, 이를 본 관객들도 감화된다고 하였다.

07 도영은 무대 밖 인물로도 설정되어 연출가와 비평가의 시각을 가로지르는 통찰력 있는 분석을 내놓는데, 이는 작가 대신 독자에게 무대의 상황을 해석해 주는 역할이다.

| 오답 풀이 | ① ㉔과 경쟁을 통해 자신의 길을 넓혀 가며 내적인 성장을 이루는 인물은 ㉔이다.
 ③ 국극단 공연에서 반전의 강렬한 연기를 통해 독자들에게 인물에 대한 전환된 인식을 갖게 하는 인물은 ㉔이다.
 ④ 자신만을 중시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상대와 호흡하는 법을 알아가는 인물은 ㉔이다.
 ⑤ ㉔은 신분에 대해 자신에게 체화된 편견을 극복하지만, ㉔은 예술에 대한 어머니의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복합양식의 글 읽기와 쓰기

확인 문제 01

본문 282~283쪽

01. ㉔ 02. ㉔

01 미세 플라스틱이 빨아들인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은 자연 환경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거쳐 동식물

체내에 축적되는 유해 물질이다.

|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 의하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최종적으로 바다에 모인다.

③ 2문단에 의하면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첨가제로 투입된 각종 화학 물질이 새어 나온다.

④ 2문단에 의하면 폴리염화 비닐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빛을 오래 받으면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새어 나오는데, 이는 해양 생물의 체내에 유입되어 내분비 계통 교란을 유발할 수 있다.

⑤ 1문단에 의하면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중 합성 섬유로 인한 것이 전체 요인의 3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02 그래프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분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각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하여 나타내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표제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독약'에 비유하여 미세 플라스틱의 유해성을 강조하고 있다.

② 동영상 자료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양보다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양이 많으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모여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③ 야생 병코돌고래의 소변 샘플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해양 생물들이 유해한 화학 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⑤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가 다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표현해 미세 플라스틱을 인간이 섭취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확인 문제 02

본문 284~285쪽

01. ㉔ 02.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에 미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하므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미세 플라스틱을 줄여야 한다.)

01 우리의 혈액과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나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지 않더라도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 들어온 독성 물질이 우리 몸 안에 잔류하여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미세 플라스틱을 이대로 계속 방치한다면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한 반응이다.

② 이 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된다고 한다.

③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 들어온 독성 물질과 미세 플라스틱이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된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 안에

잔류하여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해양 생태계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 과연 인류는 안전할까?’라는 질문에서 인류의 안전이 위협 받게 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02 글쓴이는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경고하며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설득하고 있다.

|서술형 평가 기준|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과 문제 해결의 의도를 명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과 문제 해결의 의도 중 한 가지만 서술한 경우	중
글쓴이의 의도를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확인 문제 03

본문 286~289쪽

01. ③ 02. ④ 03. ① 04. ②

01 조사의 어려움은 조사 보고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아니다.

|오답 풀이| ①, ②, ④, ⑤ 조사의 목적 및 필요성,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 조사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는 조사 보고서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이다.

02 이 보고서는 합성 섬유에서 비롯되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조사하여 알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오답 풀이| ① 친환경 섬유 소재의 종류를 다루지 않는다.
 ② 합성 섬유에서 비롯된 미세 플라스틱이 재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다루지 않는다.
 ③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언급하고 있으나 배출량 변화 과정은 다루지 않는다.
 ⑤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 요인별로 달라지는 특성을 비교 분석하지 않는다.

03 자료 1을 보면, 합성 섬유 의류 중에서도 아크릴보다는 천연 섬유가 포함된 면 혼방 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 개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모든 합성 섬유 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동일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04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됐을 때의 악영향에 관한 전문가 인터뷰 영상인 ‘자료 2’는 ‘조사의 필요성’에서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시

각화한 ‘자료 1’은 ‘조사 결과’에서 활용할 수 있다.

③, ④ 합성 섬유 이용과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관한 학생들의 인식을 조사한 ‘자료 3’은 ‘조사 결과’에서 제시할 수 있다.

⑤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의 비중을 그래프로 나타낸 ‘자료 4’는 ‘조사의 필요성’에서 활용할 수 있다.

확인 문제 04

본문 290~291쪽

01. ② 02. ④

01 이 보고서는 합성 섬유에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과 문제점, 합성 섬유의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의생활과 관련해 미세 플라스틱 발생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조사의 목적이 있다.

|오답 풀이| ①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 중 합성 섬유가 가장 비중이 크다는 것을 통해 합성 섬유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보여 주고 있다.

③ ③의 ‘조사 방법’을 통해 알 수 있다.

④ 자료 조사 결과에서, 천연 섬유가 섞인 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의류 구입 시 천연 섬유가 섞인 상품을 구입할 것을, 낮은 온도의 물, 짧은 세탁 시간에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줄어든다는 사실을 통해 세탁 시에는 낮은 물 온도에서 짧은 시간 세탁할 것을 실천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⑤ 학생들이 옷을 사거나 입을 때 옷의 소재를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 합성 섬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거의 모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인식 개선 및 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2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서 합성 섬유의 종류에 따라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눈에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림으로 제시하고 있다.

확인 문제 05

본문 292~294쪽

01. ④ 02. 서론: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 조사 방법 소개 / 본론: 조사 결과와 분석 / 결론: 조사 내용 요약과 제언

01 보고서의 자료는 다양하고 폭넓은 내용보다는 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서 목차의 각 항목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자료인지를 평가해야 한다.

02 보고서의 형식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서론에서는 조사의 목적과 필요성을 밝히고, 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본론에서는

조사 결과와 그에 대한 분석과 해석을, 결론에서는 조사 내용에 대한 요약 정리와 제언을 적는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서론, 본론, 결론에 해당하는 각각의 내용을 적절하게 적은 경우	상
서론, 본론, 결론 중 두 가지만 적절하게 적은 경우	중
서론, 본론, 결론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적은 경우	하

소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296~298쪽

01. ④ 02. ③ 03. 플라스틱이 미세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첨가된 다양한 화학 물질이 배출되며, 미세 플라스틱은 물속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중금속을 흡수하여 더 많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04. ④ 05. ① 06. (라)에서 '우리의 혈액과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점'을 밝힌 연구와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의 출처를 밝히고, (마)에서 '2050년이 되면 전체 물고기의 무게보다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나날 것이라는 예측'의 출처를 밝히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7. ① 08. ① 합성 섬유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 ① 주제 선정 이유(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09. ④ 10. ③

01 폴리염화 비닐에서 새어 나온 독성 물질인 프탈레이트가 해양 생물의 내분비 계통을 교란하여 개체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① 미세 플라스틱의 해양 유입 전체 요인 중 합성 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합성 섬유 사용이 증가하면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은 증가할 것이다.

②, ③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묻어 들어온 독성 물질과 더 작은 입자로 분해된 나노 플라스틱은 우리 몸 안에 잔류하여 위험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⑤ 해양 생물이 먹이로 착각해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면 다양한 먹이 사슬을 통해 다양한 상위 포식자로 이동하며 먹이 사슬의 모든 단계에 있는 생물들의 몸속에 잔류하게 되므로 상위 포식자에게 해를 끼치게 된다.

02 (다)에서는 미세 플라스틱이 사람에게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지만,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나열하지는 않았다.

| 오답 풀이 | ① (가)에서는 해양으로 유입된 플라스틱 쓰레기가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을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② (나)에서는 프탈레이트의 사례를 통해 화학 물질의 유해성을 서술하고 있다.

④ (라)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먹는 약 5g의 미세 플라스틱은 신용카드 한 장의 크기와 같다고 예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⑤ (마)에서는 '지구 표면의 ~과연 인류는 안전할까?'라고

미래를 예측하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대해 '그 후폭풍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답을 하며 미세 플라스틱의 위해성을 드러내고 있다.

03 글쓴이가 바닷물 속을 떠도는 플라스틱 조각들을 '화학 물질의 혼합물'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플라스틱이 자외선에 노출되고 부서지면서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에 첨가된 다양한 화학 물질이 배출되며, 미세 플라스틱은 물속의 잔류성 유기 오염 물질과 중금속을 흡수하여 더 많은 화학 물질을 포함하게 되기 때문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플라스틱 조각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과정과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 오염 물질과 중금속을 흡수하는 내용까지 정확하게 서술한 경우	상
플라스틱 조각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는 과정에 화학 물질이 배출된다는 점을 설명하였지만, 오염 물질 흡수 내용이 없는 경우	중
오염 물질을 흡수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되는 과정의 화학 물질 배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하

04 이 글에서 미세 플라스틱은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바다에 모여 부서지면서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주로 플라스틱 제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 오답 풀이 | ①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은 먹이 사슬을 거쳐 인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

② 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첨가된 화학 물질 중 하나인 프탈레이트가 해양 생물의 내분비 계통을 교란한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③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상위 포식자인 사람의 인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⑤ 해양에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합성 섬유이다.

05 '우리가 몰랐던 플라스틱 이야기'라는 동영상에 따르면 플라스틱 쓰레기는 재활용되는 양보다 소각되거나 버려지는 양이 훨씬 많다고 하였다.

| 오답 풀이 | ②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을 나타낸 그래프에서 해양 유입 요인 중 도시 먼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4%임을 알 수 있다.

③ '플라스틱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을 통해 해양 생물이 섭취한 미세 플라스틱이 먹이 사슬을 거쳐 사람이 섭취하는 생선, 홍합, 굴 등의 해산물까지 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주일 동안 약 5g의 플라스틱을 섭취한

다고 한다.

⑤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을 통해 해양으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06 (라)에서는 우리의 혈액과 장기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된다는 것을 밝힌 연구와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마)에서는 2050년이 되면 전체 물고기의 무게보다 바닷속 플라스틱의 무게가 더 나갈 것이라는 예측의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내용들의 출처를 밝히면 글의 신뢰성이 더 높아질 것이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라)와 (마)에서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를 모두 제시하고,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상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의 일부만 제시하고,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서술한 경우	중
출처를 밝히지 않은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출처를 밝혀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내용만 서술한 경우	하

- 07 주제 선정은 학생들이 함께 논의해서 결정한 사항이고, 보고서를 쓰기 위해 자료 조사(상민), 설문 조사(민호), 조사 결과 정리와 시각 자료 구성(수지, 지연)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 08 (가)의 대화를 통해 학생들이 작성할 공동 보고서의 주제는 ‘합성 섬유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의 문제점과 해결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조사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주제 선정 이유, 즉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시할 것임을 알 수 있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과 ㉡에 들어갈 말을 모두 정확하게 쓴 경우	상
㉠과 ㉡ 중 한 가지만 정확하게 쓴 경우	중
㉠과 ㉡을 모두 명확하게 쓰지 못한 경우	하

- 09 ‘자료 3’의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들은 합성 섬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대부분(77.5%)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 4’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으로 합성 섬유, 타이어, 도시 먼지 등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료 2’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에 해양 생물이나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자료 4’를 통해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 중 합성 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자료 1’을 통해 합성 섬유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알 수 있는데, 천연 섬유의 함유 비율에 따라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개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0 ‘자료 2’는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축적됐을 때의 악영향에 관한 전문가의 인터뷰 동영상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활용할 수 있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 1’에서 천연 섬유가 섞인 의류에서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의류 구입 시 가급적 천연 섬유가 섞인 상품을 구입하자는 미세 플라스틱 배출 감소 방안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자료 1’에서 합성 섬유로 만든 의류 세탁 시 발생하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자료 3’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옷을 사거나 입을 때 옷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 합성 섬유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배출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보여주므로, 합성 섬유를 이용하는 우리의 태도와 인식 개선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 활용할 수 있다.

⑤ ‘자료 4’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 요인 중 합성 섬유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합성 섬유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을 설명할 때 활용할 수 있다.

대단원 시험 예상 문제

본문 302~304쪽

01. ④ 02. ② 03. ③ 04. ② 05. 닫힌 공간의 무대는 인물 간의 경쟁을 초래하여 주인공과 주변 인물들의 갈등만을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서사가 전개될 수 있지만, 「정년」은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하여 서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다. 06. ② 07. ⑤

- 01 매란 국극단의 인물들이 보여 주는 경쟁과 갈등은 한 인물의 드라마틱한 성장보다 수많은 작고 큰 물결들이 함께 넘실거리는 역동적이고 찬란한 물결의 합을 만들어 내는 요소이다.

| 오답 풀이 | ① 영서는 클래식 성악만을 진정한 예술로 여기는 어머니의 편견으로 상처를 받고 갈등 관계에 있었다.

② 도영은 양반 가문 출신이지만, 기생 출신의 연구생들도 있었다.

③ 정년과 영서는 자신의 길을 더 넓혀 가면서 서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경쟁 관계를 형성한다.

⑤ 주란은 정년의 친구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다가 「자명고」 공연에서 강렬한 빛을 발산해 반전된 성격을 보여 준다.

- 02 현실과 분리된 별도의 가상 공간을 만들어 낸다는 점에서 무대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가진다. 「정년」이 서사를 다채롭게 전개하고 있는 것은 무대에 오를 수 있는 등장

인물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닫힌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 03** ㉔은 「정년이」에서 사용한 오버랩 기법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오버랩 기법과 차이가 있다는 내용이다. 이는 웹툰의 일반적인 특징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정년이」의 개성적인 특성을 제시한 것이다.

| 오답 풀이 | ① ㉔은 국극과 판소리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정년이」에서 낯선 소리를 형상화한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이다.

② ㉔은 인물을 클로즈업해서 보여 주는 장면의 예시를 통해 「정년이」의 표현 방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④ ㉔은 작가가 여성 국극이라는 낯선 소재에 대한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도앵이라는 인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⑤ ㉔은 정년이 여느 사람들처럼 여성이 남성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편견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 04** (가)에서는 「정년이」가 인물의 동작, 앵글, 노랫말의 표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낯선 소리를 표현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보기〉는 웹툰이 화면을 하단으로 무한히 이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세로로 긴 컷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정년이」가 이를 이용하여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 오답 풀이 | ① 인물이 소리를 하는 장면의 특징을 순차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가)이다.

③ 웹툰에서 칸의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제시한 것은 〈보기〉이다.

④ (가)와 〈보기〉 모두 장면들이 맺고 있는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표현 효과가 나타나는 양상을 분석하고 있지 않다.

⑤ (가)와 〈보기〉 모두 장면 간의 차이점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성격을 구체화한 방법을 강조하고 있지 않다.

- 05** 닫힌 공간으로서의 무대는 인물 간의 경쟁을 초래하여 서사가 갈등만을 중심으로 단선적으로 전개될 수 있지만, 「정년이」는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역할과 반전을 부여하여 서사를 입체적으로 전개함으로써 이를 극복하고 있다고 하였다.

| 서술형 평가 기준 |

문제점과 극복 내용을 모두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상
문제점과 극복 내용 중 한 가지만 적절하게 서술한 경우	중
문제점과 극복 내용을 모두 명확하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하

- 06** 〈자료 2〉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들의 비율을 원그래프로 보여 주는 자료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최종적으로 바다로 모이게 되는 과

정을 밝히는 자료로는 적절하지 않다.

| 오답 풀이 | ① 〈자료 1〉은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해양에 쌓여 바다 생물과 인체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내용이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전달하기에 적절하다.

③ 〈자료 2〉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미세 플라스틱의 요인을 보여 주어 합성 섬유, 타이어, 도시 먼지 등 실생활과 직결된 요인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자료 3〉은 해변에서 발견된 미세 플라스틱들을 보여 주는 사진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해변에 다량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므로 적절하다.

⑤ 〈자료 4〉는 버려진 플라스틱이 바다를 거쳐 우리 식탁에 오르는 과정을 그림으로 보여 주므로 이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다.

- 07** 해양 생태계가 지구 표면의 3/4를 차지한다는 것을 밝히며 ‘해양 생태계가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면 과연 인류는 안전할까?’라는 질문을 던져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에 미칠 영향을 독자가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오답 풀이 | ① 2050년의 바닷속 플라스틱 무게를 예측하고 있지만 출처를 밝히지 않아 신뢰할 만한 기관의 예측 결과인지 확인할 수 없다.

② 객관적 자료를 해석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으며, 미세 플라스틱이 인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주관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③ 전문적인 과학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④ 현재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후폭풍’이라는 비유적 표현으로 드러냈으나 낙관적 전망으로 바꾸는 내용은 없다.